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3.03+04

통권 제116호 (비매물)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3년 3월 5일
발행인 정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대) FAX 02-2203-1974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디자인 하나로에드컴(www.hanaroed.com) 인쇄 (주)광진문화

CoverStory 강성욱 GE코리아 사장

“In Korea for Globe”

한국 기업과의 동반성장으로
가장 한국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뿌리 내릴 것

머리글 한수산 소설가

3·4월 프로그램

Issue & Seminar

— 〈신년하례회〉 고은 시인

— 〈창립 38주년 기념〉 장충식 단국대 명예총장

wowlaw법률칼럼 최수영 법무법인 은을 변호사

Hot & Issue

— 제1회 감사나눔 페스티벌

— 선타원 신현대 교도 열반

TPT 멘토대학

세상을 보는 눈 홍웅식 한국직무능력개발원 원장

회원 & 연구원 소식

아카데미뉴스

2013 KHDH 교육프로그램

정보비타민

명사초청특강 계윤경 ㈜에듀머니 대표

발행인편지

김병일칼럼



‘카본’, ‘세라믹단열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모간**이 있습니다.



Thermal Ceramics

세계최초 바이오솔루블 웰빙 단열재(친환경)

Superwool, 세라믹화이버, 세라믹보드,
파이로블록 모듈 외



Engineered Carbon

첨단 카본분야의 리더

초고순도 Glassy Carbon 함침 및 코팅,
Graphite 제품, Carbon Felt 외



Electrical Carbon

카본이라면 ‘가람카본’

산업용 카본브러쉬, 집전자용 카본, 슬립링 외



Graphite 열교환기

세계적인 흑연 열교환기

Graphite Shell & Tube Heat Exchangers 외

정론(正論)과 정명(正名)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의미인지, 뭘 어쩌자는 것인지 의미를 모를 구호들을 만난다. 예를 들자면 '세계 속의 경기'라는 표어가 그렇다.

경기도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있던 것을 옮겨 오겠다는 것도 아닐 텐데, 경기도가 세계 속에 있지 그렇다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경기도를 무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인지 의미가 와 닿지 않는 것이다. 오래전 인도에 갔을 때였다. '지구가 몸이라면 인도는 영혼이다'라고 어느 시인의 말을 인용해 놓은 표어를 보고 감격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 '세계 속의 경기'는 그런 의미도 아니다.

다른 것으로는 경기 일원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기버스'라는 회사가 있다. 이 버스는 '경기버스, 웃는 버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서울과 경기도를 누빈다. 문제는 웃는 버스가 무슨 소리인지 그 개념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웃는 버스라니. 타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버스라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꺄꺄꺄 하죽하죽 그런 소리를 내며 달리는 버스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사람들은 여기에 글자 하나씩을 덧붙여서 이렇게 바꿔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버스 웃기는 버스', '경기버스 비웃는 버스'라고.

산자락에 마련한 내 글을 쓰는 작업실 앞마당에는 여름이 되면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게 풀이 자라곤 한다. 하는 수 없이 잡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를 불러 그 잡초들을 뽑아내게 했는데, 풀을 뽑고 난 아주머니가 돌아가며 하는 한마디가 참 절묘했다.

"뽑으면 뭘 해요, 금방 또 올라올 걸요. 풀이란 놈들이요, 풀 뽑고 돌아가는 주인이 모자 벗었나, 안 벗었나 보려고 벌써 고개를 내민답니다."

늘 입가에 웃음을 머금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한국인의 언어감각이다. 말 하나하나에 어쩌면 이다지도 과장과 해학이 넘치고, 삶의 애환까지 담아낼 수 있을까 놀랍기 때문이다.

잔칫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와서 잘 차렸느냐고 묻기라도 하면 우리는 대뜸 말한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더라. 그래서 배가 터지게 먹었노라." 세상에, 아무리 잘 차렸으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일까. 아무리 잘 먹어도 배가 터지게 먹었을까.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의 서글픈 언어유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린 음식이기에 고픈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는 과장, 이 가난한 시절의 추억에 얽힌 레토릭에도 우리의 언어감각이 번득이는 것이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 좋은 공기와 산책길을 찾아서 팔당댐이 바라보이는

한강가로 집을 짓고 나간 친구가 있었다. 거실 벽을 통유리로 장식해서 한강이 그냥 집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말 그대로 '뷰(view)가 죽여주는 집'의 집들이 초대에서였다. 음식이 차려 나오는데 유기농 채소만으로 된 쌈이라면서 수북하게 상에는 야채가 올라왔다. 그걸 바라보던 내 옆자리의 친구가 한마디 내뱉었다. "어이구, 뽕 나올까 무섭네."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셔도 푸짐하게 차려 내온 쌈을 보고 '뽕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의 이 고약하기 짝이 없는 해학이라니.

1980년 5월 21일 계엄사령관이 '광주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한 이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광주폭동, 광주학살, 광주사태, 광주시민항쟁... 등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름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은 이름 혹은 말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말, 그리고 이름이란 그처럼 엄숙하다. 무섭게 냉혹하다. 이름이 그 이름으로 대변되는 어떤 사안의 본질과 그 본질이 품고 있는 진실을 드러내지 못할 때 그 이름도 그 본질도 허위일 뿐이다.

다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일찍이 언론학자 최정호 교수는 '정론(正論)은 정명(正名)'이라고 설파했었다. 바르게 이름을 붙일 때 비로소 바른 논지, 바른 언론, 바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었다. 좀 더 그에 걸맞게 합당하고 정확하게 의미전달이 되는 바른말을 찾는 마음이 아쉬워서 하는 말이다. **한수산**



● 한수산 소설가

1946년생으로 경희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1967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으며, 197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4월의 끝〉이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했다. 현재 세종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해빙기의 아침〉, 〈부초〉, 〈유민〉, 〈육망의 거리〉, 〈사백년의 약속〉, 〈까마귀〉 등 70여 편의 작품이 있다. 제 36회 현대문학상, 녹원문학상, 오늘의 작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경제경영포럼 3

우리는 무엇을 경영해야 하는가

제1777회 3월 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무협지에 등장하는 싸움의 고수들은 절대 자신의 칼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 그들은 능숙한 솜씨로 적의 칼을 빼앗아 그것으로 적의 목을 친다. 비즈니스에서도 진정한 고수는 '적의 칼'로 싸운다. 비즈니스에서 적의 칼로 싸운다는 것은 '기존 시장의', '과거의', 그리고 '경쟁사의' 전략과 전술, 상품과 서비스를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해 새롭게 활용한다는 뜻이다. 한양대 이명우 교수는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팀장·미국 가전 부문 대표, 소니코리아 사장, 한국코카콜라 회장, 레인콤 대표이사 등을 거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등 33년간 비즈니스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쌓은 경험과 첨단 경영이론을 바탕으로 창조와 창의란 '기준'과 다른 것, 차별화란 '남'과 다른 것, 혁신은 '지금까지'와 다른 것이며, 진정한 고수는 '적의 칼'로 싸운다는 내용을 담은 <적의 칼로 싸워라>라는 책을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험과 이론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그의 글은 "살아 펴먹이는 체험적 경영 지식이 강력한 인사이드를 준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남다른 가치를 창출하고 후학을 양성하는데 힘 쏟고 있는 이명우 한양대 교수를 초빙하여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이론으로 무장한 지행합일의 경영론을 통해 기업경영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치사회포럼 2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

- 인성교육의 방법과 도구

제1778회 3월 14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자원이 많거나 시장이 넓어야 강국이 되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는 창의적 이면서도 기업가 정신이 강한 인재를 가진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인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방법은 잘 알고 가르치지만 정작 세상을 슬기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천 방법을 모른다. 우리의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인성교육이 중요시되고, 인성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최초의 PC 회사 삼보컴퓨터를 설립하며 IT산업의 선구자로 불리던 이용태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은 현재 '인성교육 전도사'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인성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1-1-6' 단계와 '1-3-10' 인생현장을 강조한다. 1-1-6은 한 달에 한 시간 6단계로 나눠 실천할 일을 정해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다. 1-3-10은 한 가지 인생목표를 정하고, 남과 나, 일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3가지씩 원칙을 세우고 여기에 효도를 추가해서 10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세상사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주장하는 이용태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을 초빙하여 선진국가의 초석인 인성교육의 방법론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명우 한양대 교수



서울대 문리대 졸업 | 美 와튼스쿨 MBA | 한양대 경영학 박사 | 삼성전자 미국 가전사업 총괄 부문장 | 소니코리아 사장 | 한국코카콜라보틀링 회장 | 레인콤 대표이사 | 고려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 한국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 부회장 | 한국능률협회 이사 | 조선일보 '이명우교수의 경영수필' 연재

<상훈> 국제휴머니테리언상
<저서> 적의 칼로 싸워라

이용태 퇴계학연구원 이사장



서울대 문리대 졸업 | 美 유타대 이학박사 | 이화여대 교수 | 건국대 석좌교수 |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겸 교육위원장 | 도산서원 원장 |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장 | (사)박약회 회장 | ㈜삼보컴퓨터 회장

<상훈> 은탑산업훈장, 신산업경영대상, 아시아위크 선정 '디지털 엘리트 25인 선정, 한국CEO대상 외
<저서> 컴퓨터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인성교육 성적보다 먼저다, 감화이야기로 아이가 달라졌어요, 한 달에 한 가지 새 습관을 기르자 외

융합과학청색기술포럼 3

21세기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
-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

제1779회 3월 2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오늘날 세계는 모든 분야에서 융합과 해체를 반복하며 실험적 도전을 하고 있다. 아널드 토인비는 “문명은 끊임없이 덮쳐오는 도전에 대응해 성공함으로써 탄생하고 성장한다”고 했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 제품은 기술과 교양 지식의 교차로에 서 있다”고 했다.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으로 애플 제품이 탄생했다는 말이다.

우리는 기술은 많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기술이 기업을 위한 첨단 공학기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만들어 주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을 통해서 사회문화나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21세기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인문과학기술의 융합에 대한 연구자원을 하기 시작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이에 적합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외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과 반성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창조는 찾고 조합하는 것이며, 융합이 곧 창조라고 말하는 염재호 고려대 부총장을 초빙하여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통한 소통과 창조, 산업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글로벌포럼 2

막오른 시진핑 시대 권력구조의 특징과
향후 10년의 과제

제1780회 3월 2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중국 최대 정치축제로 불리는 ‘양회(兩會)’가 3월 3~17일 동안 열린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합친 정치 행사로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국가주석으로 공식 선출되고, 리커창 부총리가 정부수반인 총리직을 맡아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가게 된다.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막이 오르면서 향후 중국이 당면한 국내외적 문제의 대응책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의 식품안전, 환경, 반부패, 소득분배, 사회보장 확대 등이 쟁점화되고, 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내수 주도의 건전한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한 경제성장 목표치도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국방 예산은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 미국의 아시아 회귀 견제, 대양해군 건설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안보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우리로서는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외적 과제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중국과의 관계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실현할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50여 년간 중국문제 연구에 매진하며 중국 언론으로부터 ‘세계 5인의 중국통’에 선정되기도 한 이영주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이사장을 초빙해 시진핑 시대의 특징과 향후 10년의 과제 등 세계의 중심국으로 성장해가는 중국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염재호 고려대 부총장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 美 스탠포드대 정치학 박사 |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기획예산처장, 행정대의 부총장 | 한국정책학회 회장 | 현대일본학회 회장 | 일본 초쿠바대, 호주 그리피스대, 영국 브라이튼대, 중국 북경대 교환교수 |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 한일미래포럼 대표 | 서울시 산학협력포럼 회장 | Asian Research Policy Editor-in-Chief

〈저서〉 일본 과학기술개발의 네트워크화 현황과 전망, 딜레마 이론 외

이영주 [사]중국정경문화연구원 이사장



성균관대 중국문화학과 수료 | 中 국립정치대 외교학과 졸업 | 건국대 행정학 석사 | 中 북경대 국제정치학 박사 | 駐중국 대한민국 건설기업협의회 회장 | (주)쌍방울 중국본부 총 대표 | 대우경제연구소 회장 | 민주평통 자문회의 상임위원 | 중국 북경대 객좌교수 | (사)한중우호협회 부회장 |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정책자문위원 | 중국 연변대 명예교수 |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저서〉 중국의 신외교전략과 한중관계, 당대 중국외교이론과 실천, 중국학자들 세계를 보다 외

경제경영포럼 4

꿈 전도사 송하성의 꿈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이야기

제1781회 4월 4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어려운 환경에서도 큰 꿈을 꾸었고, 온 힘을 다해 꿈을 실현시켜 '꿈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은 이가 있다. 바로 송하성 경기대 교수다. 그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인적자원 개발에 달렸으며, 한국적 상황에서 교육의 질이 우선되고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그 스스로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공부해 프랑스 소르본대에서 최단기 최고점수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에서 외교관 시절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받는 등 지혜를 향한 그의 열정과 꿈은 우리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런 그의 노력은 가족들에게까지 전파되어 5명의 고시 합격자, 판사, 변호사 및 광역시장 배출 등 놀랄만한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송 교수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시작해 청와대 경제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주미대사관 등에서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연세대, 서울대에서 경제학원론, 경제정책론을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경제통'으로 불린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 인터넷에서는 '영업 1순위',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50대 호남·경제통'으로 박 대통령의 탕평 인사 기준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노력 끝에 얻은 성공인생을 넘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송하성 교수를 초빙하여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인적자원 개발, 즉 교육에 있음을 진단해보고 그 방향을 제시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융합과학창색기술포럼 4

창의성, 그 막강한 힘

제1782회 4월 1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다.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미래를 창조·주도하고 창조경제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포부와 계획이 담긴 조직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선도 과학기술 없이는 희망도 없고, 국가의 장래도 있을 수 없다. 과학기술의 경쟁력은 결국 창의성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창의성에 대한 개념도 확실치 않고, 관련 연구도 부족한 형편이다.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는 김우식 이사장은 창의성이 발휘되려면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인성', '감성'이 동시에 자극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창의적인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성과 독창성, 진취적 선의성과 전문성, 긍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창의공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의성 지수가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외향적이고 직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까지 함께 활용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창의공학연구원의 김우식 이사장을 초빙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살펴보고,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송하성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성공시대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프랑스 소르본대 경제학 박사 | 美 조지타운대 로스쿨 LL.M 취득 |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 청와대 경제비서실 서기관 | 경제기획원 공보담당관 | 주미대사관 경제외교관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 한국공공정책학회 수석부회장 | 비전서울교육포럼 상임대표 | 바른경제민주화연구회 회장

〈상훈〉 대통령표창, 대전엑스포 유공포상, 근정포장

〈저서〉 미국경쟁법가이드, 부자유친, 21세기 장보고시대를 열자, 내 아이도 꿈을 이룰 수 있다, 송가네 공부법 외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연세대 화학공학과 졸업 | 연세대 화학공학 석박사 | 연세대 교수, 총장, 명예교수 | 한국공학교육학회 명예회장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 | 한국과학기술원 특훈교수 | (사)과학문화융합포럼 이사장 | 제27대 대통령비서실장 |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상훈〉 연세학술상, 대통령표창, 교육공로상, 청조근정훈장, 재미과학자협회 공로상, 자랑스러운 연세화공인상 외

글로벌포럼 3

중국과 북한 관계로 보는 '중국인 이야기'

제1783회 4월 1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중국의 성장이 우리 대한민국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중국 측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 일단 생기면 중국으로 달려갔지만 결과는 항상 우리를 실망시켰다. 미국이 우리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성공한 것과는 정반대이다.

북한은 중국을 단순한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다. 중공 정권 창출에 확실한 자기지분이 있는, 주주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강하다. 60여 년간 그 행세를 톡톡히 해왔다. 중국 지도자들도 북한의 지분을 인정하는 말이나 행동을 많이 했다. 흔히들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하면서 혈맹 관계가 맺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1920년대부터 맺어진 북-중 관계를 살펴보면 그동안 중국이 취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가고, 우리의 대안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인 이야기〉의 저자 김명호 교수는 중국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절로 떠오른다고 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중국인보다 더 중국 근대사에 해박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중국 현장의 수많은 경험, 방대한 자료의 섭렵, 중국사회 지식인들과 쌓은 밀착된 인맥 덕분이다. 이로 인해 김 교수는 중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도 꿰뚫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40년 동안 중국을 놀이터처럼 천착해온 김명호 성공회대 교수를 초빙하여 중국과 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중국'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인문예술포럼 3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주는 시

제1784회 4월 2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우리 인생길에는 반드시 어두운 밤이 있다. 질병이라는 밤, 이별이라는 밤, 좌절이라는 밤, 가난이라는 밤 등 인간의 수만큼이나 밤의 수는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밤을 애써 피하며, 가능한 한 인생에 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밤이 오지 않으면 별은 뜨지 않는다. 별이 뜨지 않는 인생이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다. 그 누구도 밤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별을 바라볼 수 없고, 그 누구도 밤을 지나지 않고서는 새벽에 다다를 수 없다.

시인 정호승은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랑하라',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와 같이 긍정을 통해 더 아름답고 알찬 인생을 꾸려보라고 조언한다. 그는 고통의 가치와 일상의 행복에 대해, 그 깨달음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깊은 절망과 마주한 이들에게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위로와 지혜의 한마디를 들려주며 자칫 혼란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 한마디를 생생한 삶의 비밀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전하는 영혼의 양식을 짓는 시인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절망했던 인생에 힘과 위안이 되어주는, 용기를 불어 넣어 주는 시어들로 감성을 일깨우는 정호승 시인을 초빙하여 시간을 가짐으로써 희망의 낮과 좌절이라는 밤을 이어주는 삶의 소통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명호 성공회대 교수



고려대 문학 석사 | 경상대 교수 | 건국대 중문과 교수 | JPC(SEOUL)
대표 겸 총편집 |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저서〉 중국인 이야기

정호승 시인



경희대 국문학과 졸업 | 경희대 대학원 석사 |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 당선 | 대한일보 신춘문예 시 '침성대' 당선 | 한국일보 '슬픔이 기쁨에게'로 등단 |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위령제' 당선 | 반시(反詩) 동인

〈상훈〉 소월시문학상, 동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상화시인상 외
〈저서〉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 '별들은 따뜻하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산문집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동화집 '항아리' 외

2013년 신년하례회 및 제1769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아시아의 길



사랑과 예지의 눈빛으로 —2013 癸巳年 새해맞이 祝詩—

김후란 시인 / 문학의집·서울 이사장

신비로와라
우리들의 새아침은 언제나 새롭다
낡은 허물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지혜롭고 진취적인 뱀처럼
創意와 意志로 뛰는 가슴은
팽팽한 도전이다 미래를 응시한다

새벽이슬이 언젠가는 바닷물로 살아나듯이
바닷가 모래가 산으로 다시 일어서듯이
꿈꾸는 세계 큰 그림 그릴 때
삶은 아름다워라 찬란한 햇살이어라

처음부터 地球는 하나였다
저 하늘 銀河水엔 2천5백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고
宇宙엔 또 그만한 은하계 무수히 많다고 할 때
그토록 광막한 우주에서 지구는 너무 외로운 行星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없이 큰 세계
서로를 격려하며 이끌어주며
生命의 고리 영원히 이어가며
엄청난 인연으로 맺어진 내 가족, 내 이웃,
자랑스런 내 나라
存在의 빛은 驚異로와라 참으로 눈부셔라

다음 세대 다다음세대 평화로운 삶의 언덕에
싱그러운 초록별의 꿈과 희망 안겨줄
할 일 많은 우리의 뜨거운 가슴
참으로 소중하여라 우리들의 만남은
사람답게 살기위해 마음을 열고
사랑과 叡智의 눈빛으로 새날을 맞자
가슴 벅찬 새해의 큰 길, 힘있게 걷자
우리 정겹게 서로를 품자

강연



오늘 아침 감히 '아시아의 길'이라는 담론을 들고 나왔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아시아 사람이라는 자각 위에서 아시아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한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아시아의 길'

이 주제와 관련해 안중근 선생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1910년 3월 선생은 사형 집행 며칠을 앞두고 여순감옥에서 다음과 같은 휘호를 남겼다. '동양 대세를 생각할수록 정녕코 답답하니 뜻있는 남아가 어찌 편히 잠들 수 있겠는가. 평화로운 시국 아직껏 이루어지지 못하여 더욱 의기가 북받쳐 원통하고 개탄할 바인데, 나라를 다스려나갈 방도를 고칠 줄 모르니 참으로 가련토다.'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20세기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던 벽창호 시절, 31살의 청년 안중근이 가슴에 품은 대의는 한반도에 머물러있지 않고 동양의 평화로 확장되었다. 선생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열흘 동안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썼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일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유명한 말이 '하루도 책을 읽지 않으면 헛바닥에 가시가 돋는다'이다. 참 독특한 말이다. 예전에는 책을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소리 내어 읽었다.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울 때도 '하늘 천 땅 지'라고 외치며 여름철 매미가 온몸으로 울듯 온몸을 동원해 읽었다. 그래서 '체득'이라고 했다. 대가리가 아닌 온몸으로 집어

넣었다. 혀를 그렇게 놀리다 보니 가시가 돋을 새가 없었을 것이다. 은유가 아닌 리얼리티이다.

우습지만 책을 읽어야 제국주의도 가능하다. 책을 읽어야 남의 나라 침략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생들은 책벌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심장이라는 도서관은 삭막하기 그지없다. 중국은 전국에 64만 개의 도서관을 갖고 있다. 여기에 150억 권의 도서가 들어가게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박물관이나 고궁의 입장료를 쓰지 않고 모아서 그 이자로 예산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백일몽도 아니고 탁상공론도 아니었다. 오히려 예언적인 지성을 발휘한 선각자의 진술이었다. 실제 <동양평화론>에는 지금의 유료화처럼 아시아 공동화폐 사용론이 포함되어 있다. 100여 년 전 그 답답한 봉건사회 속에서 이런 진취성이 나온 것이다. 안중근 선생은 20세기 벽두에 21세기적인 절망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세계사의 주역이 되는 아시아, 당위성 넘어 현실성 획득

동양,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아시아 모두 입으로는 말하기 쉽지만 아주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이 난제로 우리들은 21세기 전반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시아를 깨달아야 한다. 그 이후로 영탄에 불과했지만 시인 오상순은 '아시아의 밤'을 노래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아시아를 좀 더 열린 공간으로 바라봤다.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근대적 혈통을 가지고 아시아 담론을 주체적으로 말해야 할 단계에 와있는지도 모르겠다. 최근 일본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화두를 던졌다. '100년 이내에 오리엔탈리즘의 의미는 전도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근대화가 재(再)오리엔탈리즘에 불과하다는 자책의 목소리도 사라질 것이다.'

그동안 축적된 서구의 동양적 가치 발견과 동양 지향적 전망의 채택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아시아 객체론으로 일관해온 서구 중심 사상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는 일본의 탈아론(脫亞論)으로 상징되는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사의 실체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가 세계사의 주역이 된다는 서구 석학들의 주장은 당위성을 넘어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다.

문명의 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해왔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 같은 담론으로 아시아의 역할이 하루아침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럽 중심의 단일하고 독점적인 세계 주도 권력이 지워지고 다양성과 상생의 새로운 무늬가 그려진 권력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축복은 넘치지만 아시아 각국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내면'은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아시아가 서구로부터 멸시의 대상으로 취급받았던 과거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망의 기운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영토분쟁이다. 동아시아 각국은 지금 영토갈등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한 무장 민족주의는 무서운 일이다. 또 하나는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패와 타

락이다. 우리나라도 부패문제가 심각하지만 중국의 부패는 무지막지하고, 일본의 부패는 아주 교활하다. 동남아시아의 부패도 심각하다. 서남아시아는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면 '아시아의 길'이라는 꿈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유럽연합이 경제적 고통을 앓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보편적인 공공성이 초국가력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연합으로서의 장점을 기대하는 아시아는 아득한 꿈이 될 것이다.

미·중·일 삼각관계와 한반도 문제 해결해야

여기에 아시아의 당연직을 자처하는 미국의 포괄적인 개입과 태평양 전략이 아시아 사태의 분모를 이루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요컨대 중국과 일본의 관계, 중국과 미국의 관계 등 동북아시아의 삼각변수는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지리학적인 상수로 굳어진 상태이다. 물론 중국 소수민족 문제나 동서 격차 문제와 함께 미국의 전방위 포위라는 큰 난제를 전제할 경우 대륙문제는 쉽지 않은 행로가 될 것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국제역학을 이끌어온 역동의 힘이 점차 기울어져 가고 있음이 틀림없다. 일본은 가던 길이 조금만 험해도 칼집의 칼을 너무나 쉽게 꺼내 드는 원시적 사무라이로 돌아간다. 이러한 우경의 본능으로는 국제적 보편성이나 대결을 바꾸는 이성을 유지할 수 없다.

미국의 힘이 약해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경제의 문제지 결코 군사적 측면이 아니다. 미국의 무력은 태양계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보기 어렵다. 또한 미국은 미국사 300년 대부분을 미국화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본능이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미국이나 중국, 일본은 동아시아 미·중·일 관계에서 제국주의라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루즈벨트의 책임〉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역사학자 비어드는 1940년대 초 “미·일관계의 핵심은 중국이다”라는 말을 했다. 바로 이 삼각관계에서 관계의 중심인 한반도 문제의 진전 없이는 이 관계 자체는 한갓 의제에 불과하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미·중·일 관계의 발전은 힘들다.

베이징대의 한 교수는 한반도의 남북문제가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의 문제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분열로 고착화되어 있다. 한반도는 물론 남북을 아울러 말하는 것이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이 지역에서 하루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그 누구도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통일을 바랄지 모르지만 아주 느슨하다. 그 외에는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시키고 싶어 한다. 유엔 회원국 중 절대다수의 먼 나라들이 통일을 원하는 정도이다. 우리와 가까운 이웃들은 분단된 지역을 뜯어먹으려고 한다. 영구 미제에 가까운 한반도 문제는 미·중·일 세 나라의 진전 없이는 동아시아적인 만성 불화라는 부담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 지역이 세계사의 품위 있는 정치 참여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 요컨대 동양 내지 아시아는 자신들의 소송적·단기적 처방에 급급하다가 세계사의 주류가 될 영광의 기회를 포기 혹은 방치하려고 한다. 세계는 아시아를 부르고 있는데, 정작 아시아는 그 호명에 ‘지구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답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의 이기주의의 자기반동성은 자아와 우주에 대해서 세계의 타자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본질적으로 유치하다. 내 떡밥에 모르면 어떻게 세계의 울음을 울 수 있겠는가.

아시아인으로서의 인식과 전망 공유해야

‘아시아의 길’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들고 나왔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이제 아시아는 시작이다’라는 겸손한 자기인식도 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구에서 달을 본다. 그러나 태양광선이 비추는 면만 볼 뿐 달의 후면은 볼 수 없다. 달을 보되 달의 일부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구의 한계이고, 우주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긴다. 태양계 끝자락에 도달한 보이저 1호가 보내온 지구의 모습은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했다. 몇백 년 뒤의 달라진 세계는 어쩌면 아시

“
‘아시아의 길’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들고 나왔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이제 아시아는 시작이다’라는 겸손한 자기인식도 있다.
”

아나 유럽의 의미조차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경계가 지워진 삶의 공공장소일 수도 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연방정부를 꿈꾸었다.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었고, 세계는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피땀한 목소리로 외쳤던 조국은 티끌이 되고 추억이 될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를 말하는 것은 뜬금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시아는 오랫동안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다. 아시아적인 가치실현이라는 열망을 앞두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새김질해 본다. 10대 시절 보았던 교실의 세계지도와 아시아라는 지역, 그리고 세계의 넓은 권역을 눈여겨보았다. 지도는 순수하다. 그러나 지도의 제작은 권력의 제작이기도 하다. 특히 근대의 세계지도는 인식주체로써 서구에 의해 그려진 것이다. 우리에게 낯익은 세계지도에는 서구 중심사관이 강하게 깃들여 있다. 지구 어디에도 높고 낮은 표기는 있



“

이렇게 아시아는 광활하고,
그래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아시아의 길’을 열어야
세계 진출은 비로소
완결성을 얻을 수 있다.

”



으나 지역의 차별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각 국가와 지역의 경계는 색으로 구분될 뿐이다. 만든 사람의 자기합리화의 기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어준 이름을 달고 있다.

진보 이론의 원조로 평가받는 헤겔과 마르크스조차 아시아를 ‘역사가 없는 공간’으로 폄하하며 객체화시켰다. 그러다 보니 아시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왜곡되었다. 세계 육지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세계 시간의 절반인 11시간의 시차를 품을 정도로 광대한 아시아의 가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 3국으로 아시아를 좁히는 오류를 범했다.

유럽은 그냥 유럽일 뿐이다. 피레네산맥에서 우랄산맥까지 거대한 하나의 평원으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인종도 크게 보면 코카서스 백인종 하나고, 왕족의 핏줄도 섞였다. 폴란드나 핀란드 사람이 파리나 런던으로 이주해 살아도 건강에 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아시아의 상황은 다르다. 아시아는 그냥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들이다. 유럽처럼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다인종에 다민족이고, 세계 모든 종교의 발상지이다. 일원이 아니라 다원이다. 나 혼자만 임자가 아니라 모두가 임자다. 평원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준령부터 사막, 초원, 평원에 툰드라, 타이거까지 있다. 한국인은 고산족이 아니라 티베트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아는 광활하고, 그래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정작 아시아는 아시아를 모른다. 서로에게 너무나 무지하다. 당장 한국인을 보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는 자연스럽게 즐기지만 예술성 높은 인도, 터키, 이란 영화에서는 낯설음을 느낀다. 미국이나 유럽 친구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만 아시아 친구는 마음을 두는 친구가 없고 의

무적이다. 같은 아시아인 티베트 음식보다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의 정크푸드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다. 이런 환경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인식과 전망을 공유하는 것은 어렵다.

‘아시아의 길’ 열어야 세계 진출 완결성 확보

아시아는 복잡한 공간이다. 아시아는 아시아라는 이름 없이도 각 영내에서 자체의 문화를 잘 발전시켜왔다. 중국은 자체로 천하의 사상을 구현하고 있다. 자기 나라가 중심이고 천하이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은 인류문명의 단초인 스키타이 말을 타고 자기 풀밭을 세계로 만들었다. 열대밀림의 캄보디아 사원과 인도의 카주라호의 현란한 육체형 이상학, 열사의 아라비아는 초승달을 조상들의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그 우주의 합일을 이루고 있다. 아랍 중동 국가에는 모두 초승달이 그려져 있을 만큼 달을 좋아한다. 아시아만큼 역대의 신들이 우글거리는 곳은 세계에 없었다.

근대 벽두의 막한 자존심으로 중국은 중국의 학문을 체(體)로 하고 서양의 학문을 용(用)으로 하는 ‘중체서용(中體西用)’을, 일본은 화(일본)의 정신 위에 서양의 기술을 가져와 사용하자는 ‘화혼양재(和魂洋才)’ 이론을 내세웠다. 조선은 우리의 전통적인 제도와 사상은 지키면서 근대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동도서기(東道西器)’ 이론을 펼쳤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아시아는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점을 가지고 아시아에 나서야 한다. 실제 이러한 인식의 확장이 가능해지면 남북한 갈등, 동북아 대립 등 여러 가지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창백한 푸른 점’에서 전쟁은 얼마나 허무한가.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아시아의 길’을 열어야 세계 진출은 비로소 완결성을 얻을 수 있다. **김재**

〈창립 38주년 기념〉 제1773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그래도 강물은 흐른다

축사1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나오게 되어 영광이다. 인간개발연구원의 창립 38주년을 축하드린다. 38년 전에 '인력개발'이 아닌 '인간개발'을 모토로 했다는 것은 오늘날 이름 붙여도 적당할 만큼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다.

바쁘다는 핑계로 조찬에 자주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장만기 회장의 인상이나 마음처럼 늘 이 모임에 오면 따뜻함을 느낀다. 이와 같은 따뜻함을 중심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발전해왔다. 오늘 장충식 명예총장님의 '그래도 강물은 흐른다'라는 주제를 접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다. 나도 12년 전에 〈강물은 바람 따라 길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시집을 낸 적이 있다. 강물은 바람 따라 물결치지만 바람 때문에 갈 길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내용이다.

중국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이 있다. 황하가 수없이 꺾여 흘러가도 결국은 동쪽을 향해 흐른다는 말이다. 역사도 그렇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승기에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의 강연 주제처럼 그래도 우리나라는 인간의 따뜻함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미래를 축원하는 의미를 두기 위함인 것 같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앞으로 대를 이어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해왔던 것처럼 각 개인도 새해를 맞아 계획하고 생각하고 뜻한 것보다 두 배, 세 배, 열 배 이루시길 바란다.

축사2

이심

(사)대한노인회 회장



나도 여러분과 같은 회원의 한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대한노인회 회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인 것 같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의 현장이다. 훌륭한 여러 회원들과 함께 인간개발연구원을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장만기 회장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 특히 장만기 회장이 38년 동안 1,773회의 모임을 준비해온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나도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린다.

오늘 장충식 명예총장께서 '그래도 강물은 흐른다'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지만, 한국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된다. 그 한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흐를 것이다.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계속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38년 전 40대는 지금 모두 70대 노인이 되었다. 노인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며, 한국 사회에서는 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인이 부양의 대상일까, 사회를 책임져야 하는 대상일까? 장수가 축복일까, 저주일까? 노인은 사회를 책임져야 하는 대상이며, 장수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노인이 행복해야 집안이 행복하고 나아가 사회가 행복해진

다. 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민이 행복할 수 없으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무리 발전해도 노인을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장수를 재앙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 또한 져야 한다. 물론 노인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 돈 많은 노인, 사회적으로 성공한 노인, 나이 많은 젊은 노인, 신앙을 가진 노인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 바로 동네마다 있는 경로당이다. 경로당은 불쌍한 노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당당한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서 돈을 베풀고 명예를 베풀고, 건강한 힘으로 도와야 한다.

앞으로는 인간개발연구원이 이 방향으로도 신경을 써서 우리 사회가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경쟁력은 노인 안에 있다. 소나무가 오래 되면 노송이고, 술이 오래되면 노주이다. 사람이 오래되어 노인이라고 부를 뿐이다. 길에 다니는 노인들을 살아있는 박물관이 걸어 다니는 것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38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꼭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기를 바란다.

축사3

김창송

성원교역(주) 회장



가까이에서 때로는 멀리서 바라본 인간 '장만기'를 회상한다. 오늘 아침 우리 회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나왔다. 아마도 나는 수많은 회원 중 오랫동안 이사와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회원일 것이다. 장만기 회장은 내게 동지이며 친구이자 때로는 혈투는 야당의 입장에서 이 시간까지 함께 해왔다.

장 회장은 오늘날까지 그 혼한 자가용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어다니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장 회장은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성경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밑줄을 긋고 묵상을 하면서 오늘은 인간개발연구원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한 적이 있다. IMF 때 서로 힘들어도 극복해내자며 참으로 어려운 다리를 건너고 건너서, 비바람이 불어도 견뎌내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세미나를 들을 때는 지적으로, 감성으로 듣지만, 인간개발연구원 조찬에 오면 여기에 더해 영적인 경험까지 하게 된다. 다른 곳에서는 손에 잡히는 지식을 배우지만 인간개발연구원에서는 진정한 인간의 개발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중소기업 CEO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아닌 분들이 없을 정도로 장 회장은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키웠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나도 인간개발연구원을 통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느꼈다.

2년 전 장만기 회장을 비롯한 인간개발연구원 회원들과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갔을 때 고려인 동포 3~4세 학생들이 돈이 없어 울고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인간을 개발하는 초석을 다지고 왔다. 장 회장이 마치 38년 전에 한국의 미래를 봤던 것처럼 러시아 지역에 인간개발 운동을 펼쳐야한다는 철학을 기초로 독립운동 당시 재정적 후원자였던 최재형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최재형장학회'를 설립한 것이다.

현재 장학회는 하나들 회원들이 늘어 25명의 고려인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륙의 땅 러시아에 인간개발의 씨가 뿌려진 것이다. 연구원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온 아시아까지 뻗어 나가기를 바라며, 이러한 활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연구원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길 바라고, 우리 또한 열심히 일하는 CEO들이 되었으면 한다.

강연

장충식
단국대 명예총장



별다를 것 없는 사람을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38주년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다. 오늘 피아노 연주로 연구원 창립기념 행사를 축하해준 박솔지 양은 지난해 연구원 송년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나도 여러 가지 악기와 성악을 취미로 삼고 있지만 절대적 음감과 재능을 가진 솔지 양을 누군가 후원해주지 않으면 천재가 평범한 음악가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후원을 결정했다.

지금 솔지 양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은 독일에서 음악공부를 하고 국제콩쿠르에서 다수 수상한 바 있는 최윤아 교수다. 음악을 지도하는 사람은 심성이 맑아야 한다. 타인의 음악을 받아들이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예술인들이 가진 단점이라면 자신보다 훌륭하고 자질이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풍토에서는 이 학생이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해 최 교수를 소개해줬다. 작곡 또한 자연에 대한 심미적 철학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소개해줄 생각이다.

개인의 재산을 탐하지 마라

최근 신문을 보면서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 총리나 장관을 임명하는데 있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새삼 고민을 하게 되었다. 현재 단국대 총장이자 설립자 할아버지를 둔 내 아들은 언뜻 고생도 하지 않은 좋은 팔자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자손들 대부분이 쉽게 그 자리에 오른 것과는 달리 내 아들은 고행을 겪었다. 다른 자녀들처럼 과외를 시키지 않았고, 절

대 재수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교육방침을 지켰다. 4남매가 모두 그렇게 자랐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산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가정학과 교수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육영수 여사를 대신해 퍼스트레이디로서 새마을봉사단 활동을 할 때, 수많은 여성인재 중 아내에게 보좌역을 부탁해 하루아침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나는 벼슬이 생겼으면 재산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화곡동 130평 집을 단국대에 기부하고 전세살이를 시작했다. 이런 내 행동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었다. 벼슬을 하려면 재산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교육은 이처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아들이 학창시절 화곡동에서 경기중학교까지 등교했는데, 이때 박원순 現 서울시장을 친구로 만났다. 박원순 시장이 당시 서울대에서 데모를 하다가 퇴학당하고 감옥에 갔다 와서 사법시험을 치려는데 응시기준이 대학 2년을 수료하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아들은 박 시장이 단국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가 되고 싶어 했고, 아들은 그를 돕고 싶어 했다.

이 소문을 듣고 경찰에서 사람들을 보내 박 시장의 단국대 입학을 막으려고 했다. 데모한 학생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나는 입학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못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내가 신원보증을 썼고, 박 시장은 사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후 박 시장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등의 인연이 이어졌다.

대학의 총장은 두 날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선진계서 대학을 설립할 때 대학에서는 공부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사회의 불의와 투쟁하는 정의도 나온다고 하셨다. 따라서 둘 모두에게 공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불의를 타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의로운 사람의 고초는 말로 다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경제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 선진의 교육철학이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나는 축의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 결혼하면서 혼수도 받지 않았다. 축의금은 어려운 사람들이 축하의 의미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누구와의 시간약속도 어긴 적이 없다. 시간은 부자, 거지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시간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자신보다 권력이 약한 사람과의 시간약속은 더 안 지킨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시간약속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교육자는 나라의 녹을 먹어서는 안 된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에게 밭보인 일이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거절했기 때문이다. 만남을 거절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은 상대가 누구든지 시간과 장소를 정할 때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지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나의 이런 행동은 대학 운영할 생각을 하지 말거나 기업의 경우 문을 닫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한국사회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을 대학 이사장으로 모셨다. 하던 일이 막히면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석무 이사장이 오면서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고, 대학 이전 사업을 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단국대 이사장으로 있을 때 한 장관이 이사들을 불러서 대우건설 사장을 역임한 분을 대학 이사장으로 결정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 대학 교수진들이 받아들이 수 있겠는가. 이에 불복하자 3년이나 남은 이사장직을 박탈했다. 단국대 이전 사업을 하면 1천억 원이 남는데, 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나를 이사장에서 밀어내야 했다.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사장직을 박탈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반대를 했을까? 정치자금을 낸 업자가 공사를 맡게 되면 부실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대의 대통령에게 미운털이 박히니 대학병원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게 하고, 융자도 되지 않았다. 부동산을 팔려고 하면 계약한 사람에 대해 세무사찰을 했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부동산 계약이 성사될 수 없었다. 병원을 짓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데려오고, 500억 원의 기자재를 들여왔는데, 전면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에 극동건설과 계약이 성사되었다. 극동건설 회장의 셋째 아들이 단국대 출신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단국대 공사는 책임지고 700억 원을 외상으로 공사해 주겠다는 각서를 쓴 것이다. 단국대 병원 공사가 실패해야 단국대에 인가한 의과대학을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팔 수 있는데, 건설업자가 승인한 것이다. 건설업자는 수많은 건설 사업을 해왔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계약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렇게 여러 답답 속에서도 단국대 병원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단국대를 이전할 때는 이전해야 할 부지를 정부가 팔아버리고, 판 땅을 1년 후에 그린벨트로 묶어버렸다. 정부 관료는 이렇듯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의 녹을 먹으려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아들에게 스스로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점수를 매겨보라고 했더니 아들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과외 한 번 한 적 없고, 부동산에 투기한 적도 없다. 아들에게 물려준 집도 없다. 아들과 며느리 내외가 교수인데 8년 동안 셋방살이를 하면서 8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합격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문제가 중요하다. 두 아들이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고, 각각 뉴욕대와 펜실베이니아대를 졸업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이 졸업하자마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군대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단국대 총장 자리에서 내려온 뒤 교수들이 공채로 한양대에서 데려온 사람이 아들이다. 논문횟수가 단국대의 다른 교수들을 능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아들은 아침 5시에 학교에 나가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해 학교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쓰는 등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나는 29살부터 학교 일을 맡았기 때문에 단국대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그래서인지 미처 하지 못한 일에 대한 미련 때문에 총장이 된 아들의 일에 간섭하는 일이 많았다. 결국 아들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면 나만의 생활이 필요했다. 그래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음악 공부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나의 길을 가기 위해 소설 쓰고 음악 공부

선친은 백범 김구 선생과 안창호 선생, 안재홍 선생 등 민족지도자들과 함께 단국대를 설립하셨다. 선친은 통일 후의 일꾼을 만들고자 하였고, 내게도 그 일을 따라 하기를 바라셨다. 그런 이유로 서울대 사학과를 다니던 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친은 내 학적을 단국대로 옮겨버리셨다.

그리고 서울대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택시 두 대를 사서 나를 택시 조수 일을 하게 하셨다. 당시 택시 조수는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택하던 직업으로 노동 강도가 센 일이었다. 그 일을 1년간 하면서 돈을 주고는 살 수 없는 다양한 고생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내가 가난한 집안

에서 태어났을 때 과연 이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선친은 장도영 장군의 반혁명 사건에 휘말렸다. 장면 총리 때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참모총장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반혁명 사건에 연루 되어 중앙정보부에서 체포명령이 떨어졌다. 당연히 선친을 피신시켰고, 그로 인해 협박과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물리적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29살에 3일 동안 잠도 안 재우는 등 고문을 당하니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다. 하지만 권력이 나 폭력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선친은 나라(國) 자가 들어가는 학교는 발전하지 못하니 교명을 바꾸어야 한다는 압력을 수시로 받았다. 그리고 당시 학교에는 군 출신들이 많았다. 그런데 야간대학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받으니, 이들이 친일파를 싫어하는 선친에게 적대감정이 있었다. 군사정부의 문교부 고등국장과 대학 정비위원장이 단국대 출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앞장서서 야간대학만 두고 단국대를 폐교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교수 한 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폐교의 이유였다.

총장 시절에는 분신자살을 하려는 학생회장을 말리기 위해서 띠를 두르고 데모하는 5천 명의 가운데에 나서기도 했다. 내일 당장 총장을 그만두어도 좋으니 학생회장의 분신만은 막으라고 했다. 50일간 총장실을 점령하고 학교를 문 닫게 한 학생이지만 자수할 것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결국 그 일이 모두 해결되어 훗날 결혼식 때 주례도 서주었고, 더 큰 나라에 가서 앞서 가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공부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지금 그 학생회장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단국대 교수가 되었다. 물론 이런 학생을 교수로 임명할 때 기성 교수들의 반대도 있었다. 하지만 데모하고 감옥 갔다 온 사람도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대학교수가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며 반발했다. 그렇게 차별 없이 인재를 후원한 결과 지금은 훌륭한 교수로 성공했다. 나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재임할 때도 월급을 받지 않았다. 전임 총재들의 월급이 700만 원에 달했고, 대형차를 타고 다녔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 국민의 피로, 현혈로 유지해나가는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어떻게 그런 고급 차를 타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도 총장 등 고위직을 오래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지금 내 손자들은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 지금 나는 소설을 쓰고, 음악을 공부하고 있으며, 이것이 내가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다.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들보다는 우리와 같은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고관직에 오르지 않고, 남북 화해에 힘써야 한다. 남북 지도자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민족 장래를 위해, 화해를 위해 화합해서 평화의 남북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만남

인간개발연구원 멤버십은 건강한 습관,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회원자격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기업체 및 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직업인, 사회적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 또는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회원서비스 안내

1. 온라인 서비스

- 이메일 서비스
(경영자연구회 후기, 회원칼럼, 회원소식, KHDI 웹진)
- KHDI 라이브러리(강연동영상, 녹취록 다운로드)
- 홈페이지
(회원사 수상 및 경조사, 신제품 등 회원동정 게재 및 홍보)

2. 오프라인 서비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회원가 우대 및 면제, 강연CD, 녹취록 매주 우송, 경영도서 제공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회원커뮤니티 활동
-친목과 교류를 위한 이종기업 협력 동우회 (이종1그룹, 다락회, 화목회, 인목회), 골프클럽(인경회), Young CEO Forum, 차이나클럽,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무·유료 참석
- 국·내외 시찰 Program
- 회원친선행사(찾아가는 CEO교실, 회원사방문, 송년파티 외)
- 정기 간행물 <좋은사람 좋은세상> 제공
- 기업 교육컨설팅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 심사 ▶ 연회비 납부 ▶ 회원 활동

서비스 구분	서비스 항목	특별 할인	법인 회원	세미나 회원	개인 회원	오디오 회원	온라인 평생회원	후원/나눔 회원
오프라인	회원혜택 적용인원수	10인	5인	1인	1인	1인	1인	후원, 강연, 재능 기부 시 정회원 예우 ※본 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매주 목요일 개최)	면제/2인	면제/1인	면제/1인	회원가	비회원가	비회원가	
	회원 커뮤니티 가입자격	○	○	○	○			
	회원친선행사(무료, 유료)	○	○	○	○			
	기업소식 및 동정 홍보 (매거진, 이메일, 팩스, 유인물 배포)	○	○	○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	○	○			
	국내외 산업시찰 참가비 할인	○	○	○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무료, 유료)	○	○	○	○			
	조찬세미나 강연 CD 매주발송 정기 간행물 및 도서제공	5개	3개	1개	1개	1개 (도서제외)	별도구매	
		등록임원에게 우송(연 2회)		도서는 세미나 참가시 제공			정기 간행물 발송	
	교육컨설팅(명사 섭외, 연수프로그램 기획 등)	○	○	○	○			
온라인	KHDI 라이브러리 아이디 부여(동영상, 녹취록 제공)	○	○	○	○		○	
	강연 후기 이메일 서비스	○	○	○	○	○	○	
회비	연회비/온라인 평생회원은 1회 납부	650만 원	390만 원	290만 원	1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 입금계좌 : 하나은행 102-910003-99904 예금주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문의 : 경영자교육팀 T.02-445-1948

“In Korea for Globe”

한국 기업과의 동반성장으로
가장 한국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뿌리 내릴 것



“한국 시장은 성장성과 더불어 혁신에 유연한 시장입니다. 신기술이나 혁신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받아들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동반성장은 국내성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어떤 기업보다 더 한국적으로 뿌리 깊고 토착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가장 한국적인 글로벌스탠더드를 가진 GE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GE코리아 36년 역사에서 첫 외부 영입 CEO로 회사를 이끌고 있는 강성욱 사장의 경영 목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취임 1년을 지나 2015년까지 매출 8조 원 달성이라는 경영목표는 국내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런 그의 주장에 대한 근거와 실현 가능성은 GE의 글로벌 경쟁력과 함께 그의 만만치 않은 이력이 증명해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한국IBM에 입사해 직장생활을 시작한 그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의 아태지역 총괄 사장에 이르기까지 외국계 IT 기업에서 경영과 전략을 다루는 책임자로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사장 타이틀만 18년

째인 ‘장수 CEO’이기도 하다. 임원의 90% 이상이 내부 승진자인 GE 전체에서도 외부 임원 스카우트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다. 한국은 지역적인 특수성과 시장 성장성이 공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인 가운데 다국적 기업의 오퍼레이션을 총괄했던 강 사장이 적임자였다는 것이 그의 선임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IT와 솔루션의 융합이라는 과업 달성과 함께 한국 시장에서의 성장에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는 강성욱 사장을 만나 GE가 바라보는 한국 시장의 위상과 한국 기업과 동반성장을 꿈꾸는 GE코리아의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사진 · 오경근 원장

36년 GE코리아 역사에 최초 외부 영입 CEO로 취임 하셨습니다. 취임 일성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취임 1년(14개월)이 지난 지금, 경영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1976년 설립된 GE코리아가 올해로 37주년을 맞습니다. 2012년 1월부터 경영을 맡았으니 이제 막 1년이 지났네요. 현재 GE코리아의 연간 매출은 약 4조 원에 이르는데, 취임하면서 2015년까지 약 8조 원 이상의 매출을 경영목표로 내세웠습니다.

GE에 있어 한국은 중요한 비즈니스 영역에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을 GE의 비즈니스 센터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단순히 사업만 펼치는 곳이 아니라 한국을 거점으로 GE의 글로벌 사업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GE의 글로벌 경영전략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GE의 글로벌 전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현지화 전략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현지화된 다국적 기업으로 발돋움하자는 거죠. 한국은 GE의 글로벌화를 위한 현지화 전략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매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한국에 몇 개의 생산기지를 두고, 몇 개의 R&D센터를 만들고, 인재양성은 어떻게 하고, 국내의 어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보다 더욱더 한국적으로 뿌리 깊이 박혀있고 토착화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가장 한국적인 글로벌스탠더드를 가진 GE코리아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입니다. 현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적절한 파트너를 찾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GE는 훌륭한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리제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GE에서 차지하는 한국 시장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GE의 자체 조사 결과 한국은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 세계 5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시장환경이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고,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엔지니어와 기술 분야에 대한 인재육성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GE도 한국 시장에서 성장하고, 한국의 좋은 기술을 받아들여서 향후 미래 산업을 만들어가는 데 응용하고, 동시에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해외로 진출해 글로벌화를 꾀할 때, GE가 먼저 경험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E가 한국 시장에 관심을 두는 것도 시장의 성장성과 더불어 혁신에 유연한 시장이라는 점 때문이죠. 에너지, 그린, 의료, 항공 등에서 많은 혁신이 일어나는데,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한국이 파일럿 대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규모로 볼 때는 중국 등 큰 시장이 많지만 2015년까지 매출 8조 원을 달성한다면 GE 내부에서도 한국은 탑 10을 넘어 그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한국은 GDP 규모로만 보면 세계 14~15위 국가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많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GE가 한국을 보는 시각은 한국 자체의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영역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GE는 한국이나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리제이션 하는데 있어 동반자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 윈윈(win-win)하길 바랍니다. GE도 한국 시장에서 성장하고, 한국의 좋은 기술을 받아들여서 향후 미래 산업을 만들어가는 데 응용하고, 동시에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해외로 진출해 글로벌화를 꾀할 때, GE가 먼저 경험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E는 전 세계시장을 구분할 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 사람이 많은 나라, 기술력 등 고유의 경쟁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세계경제가 유럽의 재정 위기, 미국경제의 불확실, 일본의 장기침체 등 불안요인이 많지만 이 세 가지 시장마다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속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GE 내부적으로도 많이 거론됩니다. 한국은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의 발전 동력은 바로 'capability'에 있습니다. 한국은 capability가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이라는 대국과 급성장하는 아세안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신기술이나 혁신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받아들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죠. GE 역시 한국을 혁신의 플랫폼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로 여기는 만큼 한국이 혁신과 기술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강성욱 사장과 장만기 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ETC는 GE의 선진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의 강점인 IT기술과 우수한 인재 등을 활용한 협력 플랫폼으로서 GE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GE와 한국 기업을 연결하는 협력과 혁신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

GE는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일반의 인지도가 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계실텐데요.

GE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에너지,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1896년 건천궁에 설치된 한국 최초의 램프가 GE 램프였고, 전 세계 전력의 4분의 1을 GE의 장비가 생산하고 있으며, GE 헬스케어 기술이 매일 전 세계 3,000명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죠.

GE는 한국적 개념으로 보면 그룹사입니다. 다국적 그룹사로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한국식의 그룹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GE라는 하나의 법인 아래 사업부들이 존재하는 형식입니다.

GE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선정하고 유지하는 기준은 그 사업이 인류에 도움이 되거나 혁신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에코매지네이션(Ecomagination)으로 GE가 하는 현재와 미래의 기술, 혁신, 신사업의

기초에는 환경이 우선한다는 친환경성장정책입니다. 엔진 하나를 만들더라도 기름을 덜 먹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엔진을 만들자는 거죠. 다른 하나는 헬씨매지네이션(healthymagination)입니다. 인간의 수명과 건강유지, 의료에 대한 혜택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정책을 기초로 모든 사업이 진행됩니다.

GE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GE의 미래 성장동력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GE가 소프트웨어 업체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스터빈이나 항공 엔진 등의 컨트롤 장비에 들어가는 IT에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최근 관심을 두는 분야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컨트롤 장비가 소프트웨어라는 IT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은 한국사회의 화두가 된지 오래입니다. 사장님께서도 취임 이래 ‘한국 기업과 동반성장’을 줄곧 주장해오고 계신데, 다국적 기업으로서 특이할 만 하다고 하겠습니까.

한국적으로 뿌리를 내린 다국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한국 기업과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시장의 특성상 한국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제 지론이죠.

GE의 비즈니스 모토 자체가 동반성장을 기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업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국 기업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는 국내성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기업과는 어떤 식으로든 협력관계를 맺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GE ETC가 문을 연 것도 한국 기업과의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주시죠.

지난해 10월 문을 연 GE 에너지 테크놀로지 센터(GE ETC)는 '한국에서 한국 기업과 함께 글로벌 무대로 성장한다'는 GE코리아의 'In Korea for Globe'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건립된 R&D 혁신기지입니다. 1만 4,870㎡ 규모의 ETC에는 에너지와 가전사업부가 입주해있으며, 주요시설로 기술체험센터와 교육훈련 공간, 기술개발연구실 등이 있습니다.

GE ETC는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에너지 및 가전 분야의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에너지 사업 전체 밸류 체인에 걸쳐 GE의 기술 및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건립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건설플랜트(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설계구매시공) 기업, 해양플랜트 조선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계측제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첨단 센서, 산업 및 가정용 스마트그리드 등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ETC는 GE의 선진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의 강점인 IT 기술과 우수한 인재 등을 활용한 협력 플랫폼으로서 GE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GE와 한국 기업을 연결하는 협력과 혁신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GE ETC 오픈 행사에서 연설하는 강 사장

송도에 U-헬스케어 R&D센터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U-헬스케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송도 R&D센터의 정식 명칭은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KTC)입니다. 그동안 KTC는 국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국내 헬스케어 이슈를 다루는 등 국제기준에 맞는 혁신적인 헬스케어 IT 제품과 솔루션들을 개발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U-헬스케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험과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한국 시장에서 GE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장점을 묶은 '원 GE 솔루션'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계획입니다. GE코리아가 해야 할 일은 좀 더 총괄적인 시장이나 고객 중심의 시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단위나 기술 단위가 아니라 산업 단위의 시각으로 통합적인 접근을 해서 더 큰 시너지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을 헬스케어 사업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U-헬스케어 역시 솔루션 사업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헬스케어에 IT를 접목해서 의료 사업이 갖고 있는 많은 기술, 기계, 장비를 통합적으로 묶어서 의료서비스 분야에 효율적이고 통합된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에너지, 해양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협력 위주의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E는 R&D센터 오픈 등 향후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국내 시장에 관심을 두는 영역은 어떤 분야입니까.

GE코리아는 향후 한국 시장에서 건강,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사업과 에너지, 환경, 그린비즈 등 환경 관련 사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두 분야는 GE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환경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여 한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헬스케어 사업 역시 의료 수준을 높이고 의료 접근성을 낮춘다는 데 있어 동반성장의 취지가 있습니다.

GE 초음파 제품 생산의 30%를 한국이 맡고 있는데,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런 부분에서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겁니다. 에너지 사업에서는 플랜트 EPC 분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플랜트 기업의 EPC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EPC 전담조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소에 장비를 공급하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 국내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에서 발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GE는 한국 군용 엔진의 대부분을 공급함으로써 한국의 전투력과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라는 특수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의 국방산업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국방산업은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하는 거죠. 사실 보험금을 탈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GE 헬스케어초음파 전경

좋습니다. 국방에 대한 투자를 보험이라고 보는 이유 역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함이라
는 측면입니다.

GE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전은 테크놀로지전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빠르면 한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상군을 투입해 적지를 점령
하는 개념은 이미 사라졌다고 봅니다.

국방에 대한 투자가 곧 보험인데, 어떻게 투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전쟁의 개념이
방어적인 측면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
니다. 현재 국방 예산의 대부분은 군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복지를 제공하는데 들어가
는 인건비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험이라는 측면에서는 병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지만 지상군의 의미가 퇴색한 지금 군생활로 2년을 보낸다는 것은 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생산인구가 급감하는 상황
에서는 병력을 일부 줄이고, 그 비용으로 첨단과학 기술에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
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보험이라는 생각입니다.

지상군 병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력만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술력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국방에 대한 투자를 보험으로 보고 기술력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면, 군 인력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새로운 인력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최선의 방법이 될 겁니다. 복무
기간 동안 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을 제대 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는 것, 여
기에 전쟁 억제능력까지 배양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GE의 인재양성은 크로톤빌연수원으로 대변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E코리아 역
시 인재양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GE의 인재양성 전략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CEO 및 임원들의 리더십 개발을 위해 GE의 인재
양성 연수원인 크로톤빌을 지원하고 있죠. 30년 가까이
다국적 기업에서 일했지만 이전의 리더십 교육과 GE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는 달랐습니다. GE의 리더십 프
로그램은 현장 중심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나 한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GE가 좀 더 집중해
야 할 부분이 과학과 기술인력 육성입니다. GE는 경
영, 금융, 인사 및 영업관리와 관련한 리더십 프로그램
은 많지만 엔지니어링, 과학과 관련한 리더십 프로그
램이 상대적으로 미약합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GE코
리아에서도 산학협력에 치중하고 있고, 여성인력 양성
을 위한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GE코리
아는 매년 100~150명을 신규채용해서 훈련시키고 있
고, 인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채용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화여대와 함께 '이화-GE 리더십 챌린지' 같은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장기적으로 인재교육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만 27년간 근무하고 계시고, 사장 타이틀만 18년째이신 장수 CEO신데요. 사장님만의 성공철학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아직 성공했다고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느낀 것이 있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도전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위험 부담하는 것과 도박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도박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도전,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신감을 말하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마인드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주변에 감사할 줄 아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도전도 할 수 있고, 리스크 테이킹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만 다른 점은 그들은 도박을 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겪은 뒤에 꼭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없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게 되죠.

예전부터 직원들에게 강조한 ‘풋볼테리어 정신’이란 것이 있습니다. 풋볼테리어는 영국의 불도그와 테리어를 교배해 만든 투견인데,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목표물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개입니다. 바로 그 정신을 가지자는 겁니다. 한 번 시작했다면 끝까지 갈 정도의 패기가 있어야 합니다.

젊은 나이에 IT 기업의 CEO로 승승장구해오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위기상황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8년 한국으로 돌아와 탤뎀, 디지털, 컴팩 3사의 한국 합병

지사인 컴팩코리아 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당시 IMF 상황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때가 제게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당시 제 결단이 단호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젊은 직원들이 직장을 잃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물론 살아오면서 기분 좋았던 기억도 있죠.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극심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주위에 도산하는 기업들도 많았고, 그로 인해 자금 압박도 심했죠. 그러나 오히려 위기일 때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신감이 제 삶을 이끌어온 가장 큰 원동력이었죠.

그 과정에서 금연에 성공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하루 3~4갑이나 피울 정도로 ‘왕골초’였던 제게 금연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지금 담배를 끊으면 평생 안 피울 자신이 있다’는 생각에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실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금연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실천에 옮기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에게도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좋은 일이란 본인 스스로가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조찬세미나 개최 등 CEO의 학습문화 조성, 전국 지자체 및 기업, 공공기관 아카데미 교육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온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지난 38년간 오로지 ‘인간개발’이라는 한 분야에만 매진해왔고, 그에 따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은 한국사회 전체가 높이 평가하는 놀라운 업적임에 분명합니다. GE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바로 인력 양성인데요. 그런 점에서 연구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협력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은 너무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만 하려고 하면 사회에 나와서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갈 수 없어요. 변화를 리드하고 변화를 창조적으로 이끌어갈 역동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감성이나 창조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 이성,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넓혀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연구원의 노하우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김재**

● 강성욱 사장

196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IT 슬론 경영대학원 석사를 마쳤다. 1985년 한국IBM에 입사해 시스템엔지니어로 본격적인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다. 탤뎀컴퓨터 홍콩 & 대만 지사장, 탤뎀컴퓨터 동아시아 총괄대표, 한국컴팩 사장, 한국HP 엔터프라이즈시스템 사업 담당 사장, 시스코 시스템즈 기업 및 커머셜 사업 아태지역 사장 등 주요 다국적 기업에서 27년간 글로벌 요직을 거쳤다. 2012년 GE코리아 사장에 취임하며 사장 타이틀만 18년째인 ‘장수 CEO’로 GE코리아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법과 경영



아담 스미스가 고전경제학의 창시자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는 교직에 몸담고 있는 한편으로 연구에도 힘썼다. 그는 홉스(Thomas Hobbes)에 대한 비판서인 <도덕감정론>을 집필했는가 하면, 케네(François Quesnay) 등 중농주의자들이나 계몽시대를 장식한 대륙의 사상가들과 친분을 맺기도 했으며, 그 후 그 유명한 <국부론>을 남겼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사회적 이익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아담 스미스가 그의 저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서 표현한 유명한 말이다. 스미스는 각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어느 생산자가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혁신을 이룬 경우, 단기적으로는 생산자들이 원하던 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경쟁자가 혁신을 모방하면서 그 경쟁은 비용절감과 함께 가격 인하의 효과를 가져 온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수혜자가 되는 것인데, 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결과로 본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면 국가는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업 활동과 형사법적 개입의 한계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라는 견해가 있다. 다른 기업들이 실패가 두려워 망설일 때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시행한 경영진에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두고 배임죄로 처벌하게 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경영 판단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초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강화로 배임죄에 원천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봉쇄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 역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크게 보면 모두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법적인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총수에 대하여 더 이상의 특혜가 없다는 사법부의 의지는 확고한 듯 보인다. 태광그룹 횡령 사건에 연이어 최근 최태원 회장의 법정구속에서도 그러한 입장확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전과 달리 사법부는 경영공백 우려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감경요소가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준법을 통한 투명경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준법경영·투명경영 원칙은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요건’을 언급한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

“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바람직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시장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정당성을 갖춘 정부의
 삼박자가 갖추어져야 한다.”

결에 잘 나타나 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가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하면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고 있다.

①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②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③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④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 가능성 내지 도산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에 의하면,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 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대출과 경영판단의 원칙’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에 잘 드러나 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는 하나,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임원의 행위는 경영판단이 허용되는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준법정신과 투명경영 원칙 지키는 기업 활동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언제나 바람직한 결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바람직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쟁적인 시장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정당성을 갖춘 정부의 삼박자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리먼브라더스는 공격적인 성장전략을 채택하였다. 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고, 위험이 큰 상품에 조달된 자금이 투자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재무제표상의 회계부정을 통하여 투자자를 기만하였다.

리먼브라더스의 몰락은 투자은행 내부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원인이 매우 크다. 내부건제 장치와 통제시스템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지만, 운영의 실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장이 경쟁적이지 않거나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적절한 법의 개입이 결코 과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준법경영을 통하여 이윤을 내는 것이 기업의 목표이어야 하고, 투명경영은 바야흐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 최수영 변호사



1968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지방법노동위원회 조정위원, 서울지방법노동위원회 심판 및 차별시정 공익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서울대 치과병원 발전위원회 감사 및 고문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근로복지공단 부당이득심의회협의회 위원, 한국장애인재단 감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런 공로로 2009년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1회 감사나눔 페스티벌

‘감사로 행복세상’ 감동을 나눴다

각계 인사 550여 명 참석, “감사나눔으로 국민행복시대 열자” 대성황

제1회 감사나눔 페스티벌이 지난 1월 28일 각계 인사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감사나눔신문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감사나눔운동 3년을 맞아 그 동안의 사례를 나누고, 이를 확산하여 국민운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리였다.

손욱 행복나눔추진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포항시, 포항제철소, 포스코CT 군부대의 감사나눔 활동성과 소개, 사례 공모 시상, 감사체험 사례 발표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감사나눔운동은 ‘행복나눔125’에 바탕을 둔 것으로 ‘행복나눔125’는 1주일에 착한 일 한 번 하기, 한 달에 책 두 권 읽기, 매일 5가지 감사일기 쓰기가 그 내용이다.

그동안 감사나눔운동은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포항시, 포스코, 포스코CT,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에서 시행하여 구성원 간 소통이 원활해지고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포스코 등 기업에서는 업무효율 향상, 제품 불량률 감소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호 포항시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포항제철소장을 비롯한 기업체 임직원, 이병석 국회의장, 백재현, 오제세, 서상기 의원, 학계에서는 제갈정웅 대림대 총장,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 김필식 동신대 총장, 정용화 인실련 사무총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며, 감사함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새해에 많은 것을 하려 하기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을 먼저 느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사례공모를 통하여 우수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사례공모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대상** : 포스코 포항제철소 2코코스 공장(공장장 김철관)
- **우수상** : △해군 136고속정편대(편대장 김중구 소령) △호영미(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박인만(포스코CT 부장) △포항 지곡초등학교(교장 신동규)
- **감사나눔물씨상** : △박점식(천지세무법인 회장) △최병순(국방대학교 교수) △이승주(포스코CT 상무) △양창국(네오디에스 대표) △박서용(교보생명 팀장) △오정식(화남테크 노경협의회 회장) △박해식(동원개발 사원) △오숙경(시인) △최애지(포스코 외주파트너사협회사원) △박하은(한양대 재학)



제1회 감사나눔 페스티벌이 각계의 관심 속에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지속적 실천의 리더십 중요

감사나눔으로 국민행복시대 열자

감사나눔 페스티벌을 마친 후 제갈정웅 감사나눔연구소 이사장(대림대학교 총장)은 감사나눔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라는 감정은 생명이 짧아서 계속 실천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쉽게 소진된다고 한다. 실제 대림대학교에서 실험해본 바에 의하면, 한 학기동안 감사일기를 열심히 쓴 학생들이 성적도 오르고 성격도 밝아졌는데 다음 학기에 조사했더니 일부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졌다. 알고 보니 그 학생들은 감사일기 쓰기를 중단했다고 한다. 따라서 감사나눔운동은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에너지를 보충해야 하며, 그 역할을 감사나눔신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나눔의 실천은 많은 세금을 쓰지 않고도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새마을운동이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국민운동이었다면 창조경제시대에는 감사나눔이라는 새마을운동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감사나눔운동의 불씨들, 그들의 육성증언

조봉래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장

행복지수·조업률은 '올리고' 고장률·불량률은 '내리고'

“2011년 11월부터 시작한 감사나눔운동으로 포항제철소의 행복지수가 올라간 것은 물론이고, 기계와 설비의 고장이 줄고 품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단적으로 월평균 설비고장 건수가 2011년 13건에서 2012년 3건으로 현저히 감소했지요. 조업기준 준수율은 4.9% 증가(2012년 9월 기준)한 반면에 불량률은 마(魔)의 2%를 깨고 1%대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까다롭기로 유명한 도요타가 ‘포스코 철강 제품’의 품질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기에 이르렀죠. 모든 것이 설비와 기술에 감사의 마음이 보태져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허남석 포스코ICT 사장

문제 회사가 우량 기업으로 바뀐 ‘540일 만의 기적’

“포스코ICT는 포스콘과 포스테이터의 합병회사입니다. 초기에는 이질적 회사의 합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화학적 결합과 새로운 기업문화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2010년 전격적으로 ‘행복나눔125’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감사나눔을 통한 기업혁신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줬지요. 성과물입도가 2009년 43%, 2010년 58%, 2011년 84%, 2012년 89%로 쑥쑥 올라가자 포스코 그룹 전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승호 포항시장

새마을운동 발상지에서 ‘감사나눔운동 메카’로 도약

“새마을운동 발상지였던 포항이 감사나눔운동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나누면 행복해진다’는 현수막이 내걸린 시청사에는 ‘감사방송’과 ‘감사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버스와 택시에도 ‘감사나눔’ 문구가 붙었지요. 연수원 둘레길을 ‘감사둘레길’로, 시청 뒷산 계단을 ‘감사계단’으로 명명했어요. 모든 공무원이 ‘감사배지’를 부착하고 있으며, 7만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은 ‘감사노트’를 쓰고 있지요. 포항이 감사나눔으로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

고객에게 100감사 선물하자 ‘미수금 제로’ 신화 창조

“감사하는 것을 매일 5개 이상씩, 3주일을 쓰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내가 먼저 느낄 수 있고, 3개월을 쓰면 타인들도 나의 변화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감사일기 쓰기를 통해 자존감과 행복지수가 높아진 직원들은 업무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직원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100가지의 감사를 직접 적어서 선물하자 이에 감동한 고객들이 신규 고객을 소개해 준 것은 물론이고 대금을 자진 납부해 ‘미수금 제로’ 신화가 창조되었습니다.”



제1회 감사나눔 사례공모 수상자들이 나란히 섰다.



감사나눔 활동전시물-포항제철소 파이넥스 생산부



사례공모 심사평을 하고 있는 제갈정웅 총장



감사나눔 페스티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갈정웅 대림대학교 총장(감사나눔연구소 이사장)

행복과 건강 증진, 잠재력 개발의 열쇠 ‘감사의 힘’

“대한민국은 2011년 국민소득 2만 2,489달러를 달성했습니다. 1970년 255달러에 비하여 89배나 늘어난 놀라운 기록입니다. 하지만 ‘행복하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는 국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OECD 평균 3배에 달하는 세계 1위의 자살률과 이혼율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요. 지난 몇 년 동안 연구해본 결과 ‘감사하기’야말로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잠재력을 개발시켜주는 열쇠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따르듯이

박청수 원로교무를 그림자처럼 따라준 선태원 신현대 교도 열반



신현대 교도는...

故 신현대(선태원, 본명 혜재) 교도는 1943년생으로 숙명여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원불교와의 인연은 원기48년(1963) 모친 최기전화의 연원으로 이리교당에 입교하면서 시작되었다. 강남교당에 안착하면서 단장, 주무, 교도부회장, (사)청수나눔실천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온순하고 온화한 성품인 반면 한 번 결심한 일은 반드시 이뤄내는 단호함과 강직함의 소유자로 박청수 원로교무와 함께 전 세계 55개국의 빈곤 지역에 물질·의료나눔, 교육기관 설립지원, 교당건립 지원 등 베품과 선행실천의 보좌불로 한 마음 한 몸의 동행자이기도 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해외 55개국에 나눔을 실천해 온 박청수 원로교무를 31년간 그림자처럼 따르며 도와준 인물.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박 원로교무의 길벗이 되어 주었고, 정신, 육신, 물질 등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선태원(先陀圓) 신현대 교도(이하 선태원)가 지난해 12월 11일 열반에 들었다.

선태원은 박 원로교무의 각종 원고를 정리해주는 것은 물론 세계를 누비는 박 원로교무의 활동을 사진으로 기록해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경기도 용인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 박물관에 전시된 사진을 포함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도 모두 그의 작품이다. 박 원로교무는 그를 가리켜 '나의 분신이고 수족'이라며 감사해 한다. 박 원로교무의 자비와 나눔의 삶을 두고 '천수관음보살의 현신'이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법정 스님은 이렇듯 박 원로교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곤 했던 선태원을 두고 "바늘 가는데 실 따르듯이 한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바늘 가는데 실 따르듯 그림자 되어준 선태원

사진으로 모든 기록 남겨

선태원의 일생은 박 원로교무와 함께 빈곤과 질병,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적 지원과 아울러 교육과 의료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온 대봉공의 삶이었다. 원불교 강남교당을 다니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한 선태원은 강남교당 박 원로교무와 인연을 맺은 뒤에는 7개국에 교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한겨레학교를 비롯한 국내외 여러 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특히 (사)청수나눔실천회 사무국장을 맡아 병마와 싸우는 동안에도 사무국장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선태원은 강남교당 역사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투병 중에도 강남교당 30년사의 역사적 자료를 정리해 <강남교당 30년사>에 온전히 담아냈다. 박 원로교무는 "선태원은 사무적인 일에 종사한 적이 없는데도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정리했다"며, "묵묵하면서도 온갖 편의를 제공해주신 선태원의 31년간 뒷바라지가 있었기에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해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선태원은 사진에도 특별한 감각이 있어 세계 55개국을 도운 현장사진들을 모아 <The MOTHER 박청수>라는 678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의 현장화보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보다 더 많은 사진들이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 박물관에 132권의 앨범으로 보관되어 있다.

선태원은 매일 아침 좌선에 나갔고, 좌선이 끝나면 한 시간 정도 컴퓨터 앞에서 일을 보다가 가족의 아침 식사를 챙기기 위해 잠시 집에 들었다. 가사 일을 마치고

면 다시 교당에 나와 하루 종일 교당 생활을 하며 모든 일을 앞서 준비하고 끝마무리를 철저히 했다. 박 원로교무는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모든 곳을 선태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29년간 다녔다. 교통비, 기름값 한 번 계산한 적이 없다”고 회고했다. 선태원은 “고맙고 수고한다”는 박 원로교무의 인사에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라며 인사받기를 사양할 정도로 겸손했다. 이런 선태원을 박 원로교무는 “선태원은 조용한 성품에 숨은 듯 뒤에 있었고, 항상 남의 공을 드러내주며 자신은 겸손하고 아무 상이 없었다. 그리고 가슴이 따뜻하여 선태원 품에 기대어 앞길을 열어가는 출가 재가들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병마 얻으며 거듭난 삶

죽음의 순간에도 품위 잃지 않아

선태원은 일찍이 39세 때 큰 병을 앓고 나서부터 자신의 삶을 거듭나게 살기 시작했다. 이후 64세 때 대장암에 걸려 투병 중 40일간 곱기를 못하고 주사에만 의존할 때도 오히려 병을 잇는 듯 독서삼매에 빠져 지내면서 무서운 병마의 터널을 빠져나와 새 생명을 얻었고, 다시 열심히 일하고, 또 세계를 여행했다.

2011년 담도암에 걸렸을 때도 의사들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6개월의 고비를 넘기고 그 후로도 14개월을 더 생존했다. 특히 이 기간 <강남교당 30년사> 초판의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고 자료 원본과 일일이 대조해가며 결국 완성본을 만들어 재판한 후 각 교당과 세계 여러 나라 교당으로 보내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선태원은 투병생활도 수도 정진하듯 했는데,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나 다 아는 암의 그 무서운 통증도 입 밖에 내어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병문안을 온 분들이 안타까워 위로하면 “다만, 과정이겠지요”라고 할 뿐이었다.

지난 1월 28일 선태원의 49재에서 아들 장형택 교도는 조사를 통해 “다양한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병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나 의연하고 당당하셔서 옆에서 지켜보면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모든 투병 과정이 회복을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셨고, 본인의 병을 스스로 공부하고, 절대 주변분들에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남을 먼저 배려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고인의 생전의 가르침을 꼭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열반하기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0일, ‘숨이 차서 견딜 수가 없다’며 스스로 병원으로 가자고 했던 선태원은 결국 응급실에서 12시간 만에 열반했다. 그러나 선태원은 자신의 생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맑은 정신으로 말하고 행동했다.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는 청각을 믿고 박 원로교무는 선태원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지금은 최후 청정일념이 매우 중요한 때이니 한마음을 잘 챙겨요.” 이 말에 선태원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다음 생에 와서도 성불재중 그 일 해야 되니 서원일념을 잘 챙겨요.” 이 말에 또다시 선태원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박 원로교무는 “선태원님은 일원대도 회상에 큰 보살로 와서 지난 31년간 오직 나를 도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선태원은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들



의 마지막 대화였다. 선태원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뒤 열반했으며, 20개월의 투병기간 중에도 절도 있고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죽음의 순간에도 우아함을 지켰다.

경산 종법사 특별법문으로 고인 위로

인도 델리에 ‘선태원 신현대 대법당’ 계획

경산 종법사는 선태원 영전에 “선태원 정사는 서타원 박청수 종사를 도와 해외 7개국 교당 설립지원과 국내외에 여러 교육기관을 설립 지원하는 등 수많은 대불사에 정신·육신·물질로 상없는 공덕을 쌓았다. 또한, 55개국 나눔 실천 현장에서 서타원 박청수 종사의 보필지사로서 손과 발이 되고 눈이 되어 온 몸을 다 바쳐온 숨은 보살이었다”고 회고하고, “다음 생에 다시 와서 금생의 불연을 더욱 깊게 하고 신성과 서원 속에 큰 법력을 얻어 고해에 해매는 중생들에게 대종사님의 일원대도를 전하는 힘 있는 공덕주, 밝은 도인이 되기를 심축한다”는 특별법문을 내려 고인의 영로를 위로했다.

한편 청수나눔실천회는 원기 100주년을 기념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연원불지 인도 델리에 8,250㎡ 부지를 매입해 세계 주세교단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 중 대법당은 유족들의 염원을 담아 ‘선태원 신현대 대법당’으로 명명할 예정이다. 현재 청수나눔실천회 강남 사무실도 선태원의 부군인 장근진 씨가 마련해준 공간이다. 인도에 건설될 다목적 건물은 대법당, 소태산 교조관, 학교, 고아원, 노숙자 쉼터, 보경탑(寶經塔) 등이 들어서며, 설계를 마치고 5월에 착공 예정이다.

유족들은 고인의 살아생전 공도사업에 대한 헌신과 정성을 기리기 위해 장례식 조의금과 가족들의 정성을 모은 1억 원을 청수나눔실천회를 통해 고인이 원했던 공도사업에 회사하기로 했다. **김재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유산은?

인간개발연구원은 이 시대의 리더들과 함께 돈이 아닌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갖추어진 조건이 아닌 온갖 역경을 이겨나가는 리더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진솔하게 담아내는 대화의 공간.

여러분들의 지혜나눔으로 건강한 가치들이 살아 숨쉬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TPT 멘토대학은...

인생을 통해, 경영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수하면 좋을까요? CEO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개발연구원이 보유한 명사특강 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위대한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멘토대학은 강연과 멘토링의 나눔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의 지혜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TPT 멘토대학 참여는...

- CEO(창업자/전문경영인)
- 공직자 및 행정전문가
- 신문, 방송 등 언론인
- 총장, 교수 등 교육계 인사
- 판·검사, 의사 등 전문직업인
- 트렌드, 마케팅 전문가
- PD, 영화감독, 광고인, 방송인 등 영상예술인
- 작가, 음악가, 디자이너 등 문화예술인
- 운동선수, 산악인, 스포츠 전문가
- 기타 오피니언 리더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TPT 멘토대학 나눔사업은...

아름다운 리더들의 나눔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돈이 아닌 지혜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강연나눔

기업·기관 강연나눔 - 강연기부사업을 펼쳐갈 모체를 만들어주세요.

연구원의 다양한 협력기관 중 필요한 곳에 강연해주시고, 강사비를 기부약정해주시면 지혜나눔사업의 인적구성과 재단형성의 모체로 사용되어집니다.

학교 강연나눔 - 다시 학생이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진학과 취업을 뛰어넘는 인생선배로서의 조언이 학생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기부해주세요. 이미 전국 주요 지자체와 함께 중고교, 대학 등 순회강연을 개설해 미래의 리더를 키우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콘서트 강연나눔 - 위기를 창업의 기회로 만드는 마술사

풍부한 창업 노하우를 가진 분야별 CEO들의 시리즈 강의로 기업가 정신을 키우고, 은퇴자와 젊은 세대들이 자신에게 맞는 창업 노하우를 찾아가는데 등대지기 역할을 합니다.

NGO 강연나눔 - 강연만으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위스타트와 함께하는 '위(we)대한토크' 등 다양한 NGO기관과의 강연나눔 특강 제휴사업으로 리더들의 지혜를 나누는 강연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강연 동영상서비스 - 온라인과 스마트폰에서 만나는 리더들의 아름다운 나눔문화

기부해주시는 강연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통해 미래의 리더, 멘티들에게 서비스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멘토링나눔

■ 대학생 멘토링 아카데미

네가 만약 해매일 때면... 내가 멘토가 되리!

-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CEO들이 대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기업 초청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인생의 지혜를 공유하겠습니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초찬세미나를 활용하여 대학생 멘티를 1년간 기수별로 운영합니다.
- 대학생 멘티들은 기수별로 활동보고서를 통해 멘토링 제도의 유익함을 알립니다.
- 소외계층과 일반대학생이 한 기수가 되어 네트워크를 만들고 CEO들이 함께하여 작은 사회적 소통을 키워가겠습니다.

■ 청소년 멘토링&인성교육

미래의 인재, 청소년들의 인생에 등불을 밝힙니다.

학교 강연나눔을 통해 만난 전국 청소년들과 멘토링을 맺고, 사회에 대한 고민을 나눕니다. 영역별 전문가들과 함께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년원 등 필요한 곳에 후원합니다.

멘토플라워나눔

멘토플라워 꽃배달 서비스로 기부해 주세요

회원사가 멘토플라워를 이용하면 수익의 10%가 멘토대학에 기부됩니다.

평소 이용하시는 꽃배달 서비스를 멘토플라워를 통해 주문해보세요. 스마트한 주문부터 도착한 모든 꽃을 도착 현장 사진으로 확인해주는 화훼유통의 혁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착한 꽃 '플라워팀'과의 제휴로 기업에도 도움을 드리는 멘토플라워, 더불어 멘토대학의 재정을 돕는 일거양득의 나눔활동입니다.

<http://mentorflower.org>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아름다운 리더들!
나눔회원이 되어 주세요

나누는 사람들

성명(단체명) _____

회사명 _____

직장전화 _____

핸드폰 _____

이메일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부서/직위 _____

직장팩스 _____

주소 _____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 인간개발연구원
T. 02-2203-3500 F. 02-2203-1974 E-mail : sy7079@naver.com

나눔회원 신청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아름다운 리더들,
나눔의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멘토링나눔 회원

대학생 멘토링 아카데미의 멘토로 ☐ 1년간 ☐ 2년간
☐ 기타 _____ 년간 활동하겠습니다.

멘토플라워나눔 회원

멘토플라워에 가입하고 꽃배달 이용에 따른 적립금 10%를
멘토대학에 후원하겠습니다.

- 회사명 _____
- 담당자 연락처 _____

강연나눔 회원

- 인간개발연구원 초청강연료의 ☐ 10% ☐ 20%
☐ 기타 _____ %를 기부하겠습니다.
- 인간개발연구원 초청강연에 ☐ 1회 ☐ 2회 ☐ 기타
회의강연을 기부하겠습니다.

정기후원 회원

- 매월 ☐ 1만 원 ☐ 2만 원 ☐ 3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기타 _____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 매월 ☐ 5일 ☐ 15일 ☐ 25일 CMS 자동이체 하겠습니다.
- 은행명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_____

지정기부 회원

후원계좌로 _____ 을 기부하겠습니다.
입금일자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입금처 : 국민은행 381-01-0050-244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기부금은 멘토대학 운영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로 사용됩니다.

* 인간개발연구원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입니다.

*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

서명 :

리더십도 모르면서

맥주 맛도 모르면서...

감독과 배우로 만난 남자와 여자. 하지만 둘 사이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른다. 남자 감독은 '카타르시스'와 '페이스스' 등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여자 배우에게 내면 연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여자 배우는 그 특유의 몸짓과 말투로 "말이 너무 어렵다. 맥주 맛도 모르면서..."라는 당돌한 답변으로 맞선다.

감독과 일행은 새로운 맥주를 마시면서 맥주 맛에 눈을 뜨게 되고, 다 함께 맥주 브랜드를 외치며 광고는 마무리된다. 이 한 편의 광고가 2등분 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맥주시장을 삼등분하게 된다.

사실 사람들은 맥주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물의 맛이 맥주 맛을 좌우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물은 철저한 정수를 거치기 때문에 맥주 맛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맥아(보리)'다. 이 광고는 타 맥주회사와 달리 맥아를 100%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의 광고다.

나는 이 광고를 보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과연 대한민국의 CEO들은 리더십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리더십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변화가 시작되는 곳에서 리더십은 시작된다. 그렇다면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변화는 사람들 사이에서 강력한 물질적·심리적 욕구가 싹트면서 시작된다. 리더십은 근본적 변화와 얽혀 있고, 변화는 욕구(want)와 필요(need)의 역동성과 서로 얽혀 있어서 그 시작점을 찾는다는 것은 거미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찾는 것만큼 자의적이다.

그렇다면 리더십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연구자들이 개인적 관점이나 관심사에 따라 서로 다르게 다루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집단 과정에 초점을 두고, 리더가 집단 변화와 집단 활동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고 집단의 의지를 통합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성격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과업을 완성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성격특성이나 그 밖의 특성이라고 파악한다.

세 번째는 행위 혹은 행동에 포커스를 두고, 집단 내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더가 취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네 번째는 리더와 추종자 간의 권력관계로 보아, 리더는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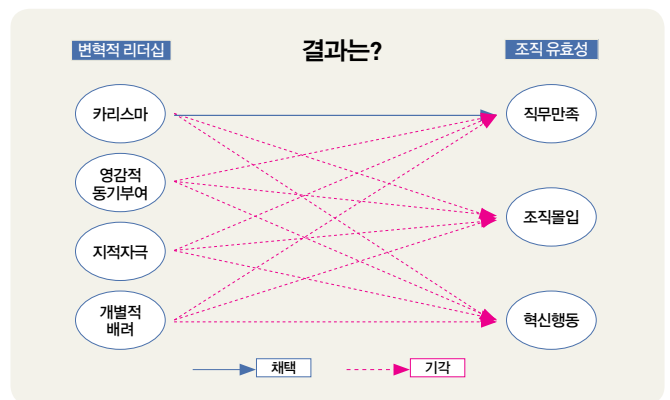
섯 번째는 리더십을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보고 리더는 집단성원들을 도와 그들의 목표와 욕구를 성취·충족시키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여섯 번째는 리더 역량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효과적 리더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리더의 지식과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리더십을 개념화 하는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현상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components)가 있다. 첫째, 리더십은 과정(process)이다. 둘째, 리더십은 영향력(power)이다. 셋째, 리더십은 목적달성(Performance)이다. 넷째, 리더십은 사람(people)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리더십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보면 리더십이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결국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다.

리더십도 모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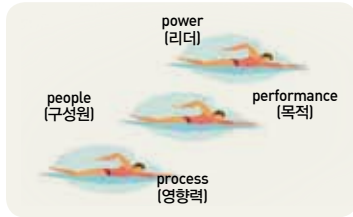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향력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CEO라면 다 아는 내용이다. 그런데 영향력의 요소로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의미는 달라진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를 반복했지만 가장 실증적으로 다양하게 검증된 리더십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다. 주제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잡았다. 그런데 연구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마디로 치명적이었다. 대한민국에는 리더가 없었다. 연구결과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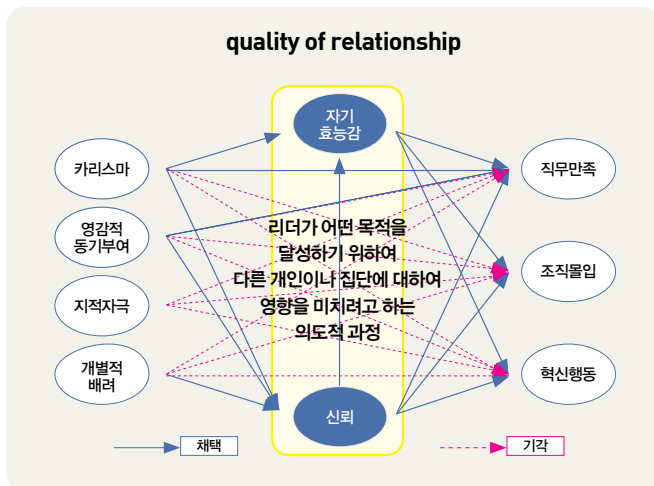


변혁적 리더십 이론에 의하면, 리더가 영향력(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동기부여, 카리스마)을 행사하면 조직에 성과(혁신행동, 조직몰입, 직무만족)를 가져온다는 것인데, 나의 연구결과는 거의 99%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결과를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에는 리더십

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반문할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그림과 같다.



리더의 영향 때문에 성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각자 알아서 했던 것이다. 1998년의 IMF를 지나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되었고, 이의 생존전략이 즉, 구성원들의 자발적 노력이 성과를 도출한 것이지 리더의 리더십의 결과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리더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앞으로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할까? 리더십의 연구가 계속되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다. 해답은 '신뢰'였다.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리더십의 키키폰은 바로 '신뢰'였다.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면 리더의 모든 영향력이 조직성과에 기여를 한다. 그러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리더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똑똑해도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리더십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리더십의 새로운 대안은?

이제야 우리는 왜 똑똑한 리더들이 그렇게 리더십 교육을 훌륭하게 배웠는데도 조직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약효가 없는 약을 계속 먹었던 것이다. 리더십의 핵심은 '신뢰'였다. 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뢰'를 구축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서 리더십을 말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연구한 리더십이 바로 '마중물 리더십'이다. '마중물 리더십'의 핵심은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리더십이다.

마중물이란 펌프에 먼저 붓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말한다. 새 물을 맞이하는 물이라는 뜻이다. 펌프질을 하기 전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는데, 펌프의 패키지가 새것일 때는 공기가 새지 않아서 금방 새 물이 올라온다. 그런데 패키지가 낡으면 공기와 함께 부어 넣은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많은 물을 부어야 하고 펌프질도 빠른 속도와 함께 더 많이 해야 물이 올라온다.

'신뢰'도 마중물의 원리와 똑같다. 첫 번째는 먼저 부어야 한다. 조직 구성원의 잠든 거인을 깨우기 위해 리더가 먼저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펌프질이라는 행동을 해야 한다. '신뢰'는 말이나 언어나 태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리더의 인격'이고 '리더의 업무 성과'로 표현할 수 있다.

맥주의 맛이 물의 맛이 아니듯, 리더십의 핵심은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동기부여, 카리스마가 아니다. 맥주 맛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맥아(보리)이듯,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키키폰은 '신뢰'다. **김재**

● 홍웅식 원장



1957년생으로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호서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성대 직업훈련컨소시엄센터장, 서일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사)한국디지털융합산업진흥협회 부회장, (사)한국벤처창업학회 이사, 산업인력공단 HRD 전문위원 등 HRD 전문컨설턴트 및 직업훈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대연봉의 기획 홍상무 따라잡기>, <벤처창업과 경영전략> 등의 저서가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전략, 변화혁신, 창조경영, 리더십 등을 주제로 왕성한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 소식]

- **김용복 영동농장 명예회장**이 2013년도 첫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상 고액을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김 회



장은 지난 1월 2일 1억 원을 기부해 229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김 회장은 1975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영동농장을 세우고 사막에서 채소를 기르는데 성공했으며, 국내에서는 강진군 일대 100만 평 황무지를 개척해 친환경 농법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2년 10억 원을 출연해 웅북장학회를 세웠고, 2005년에는 100억 원을 들여 한사랑농촌문화재단을 세워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농민을 돕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팍스 평생 흙 농사, 사람 농사, 사랑 농사를 해왔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함께 일군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 **갤러리 에쁘고(대표 김희정)**는 계사년 새해를 맞아 1월 3일~26일까지 현대미술 작가들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선보이는 <2013 복사세요> 전을 열었다. 이 전시는 '소원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지숙, 임영숙, 오관진, 한상윤, 안진희, 김성복 작가 등이 참여해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 **김수공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는 지난 1월 7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012년 물가안정 유공' 시상식에서 농산물 적정가격 유지로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자에게 안전 농산물 공급 등 국민경제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상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로 취임한 이래 '현장에 답이 있다. 발로 뛰는 농업경제'라는 슬로건 하에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미래에셋생명(수석부회장 최현만)**은 1월 25일~2월 15일까지 약 3주간을 '설맞이 임직원 나눔주간'으로 정하고 전 그룹 계열사 임직원 봉사단이 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누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2월 21일 오전 전국에서 '진심의 차이'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 전



국에서 이뤄진 이번 캠페인은 최현만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FC 6천 명이 참여했으며, "진심의 차이를 느껴보세요"를 외치며 진심의 차이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 **문종금 (사)대한삼보연맹 회장**이 새로 출범한 아시아삼보연맹의 부회장에 선출됐다. 문 회장은 지난 1월 27일 카자흐스탄 우랄스크 드람 극장에서 열린 국제삼보연맹(FIAS) 총회에서 아시아삼보연맹의 부회장으로 뽑혔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일본, 몽골 등 아시아 삼보를 이끌어가는 주요 국가 연맹 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아시아삼보연맹 회장에는 무슬림 운다가너프 카자흐스탄 삼보연맹 회장이 선임됐다.



- **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은 2월 1일 강서지역본부에서 최재형장학회를 설립한 CEO들의 나눔활동에 감동받아 기업은행 홍보대사인 박춘봉 최재형장학회 부회장(부원광학 회장)에게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2011년 CEO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최재형장학회(회장 김창송(성원교육 회장))는 '대륙의 영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연해주 고려인 3~4세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기업은행은 올해부터 매년 채용 인원의 3%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에 할당해 선발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자녀 할당 방식 채용은 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시도하는 방식이다.



- **삼익THK(주)(고문 심갑보)**는 2월 4일 대구은행 성서공단영업부를 방문해 설맞이 재래시장 상품권 3천만 원을 구입했다. 설날을 맞이해 구입한 상품권은 삼익THK 직원들이 지역 재래시장을 찾아 설 제수용품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했다.



- **재능교육(대표이사 양병무)**는 지난 2월 7일부터 재능교육의 방문 학습지를 디지털로 완벽하게 재연한 온라인 학습시스템 '스스로e' 서비스(ssroe.jei.com)를 시작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 채점에 의한 빠른 피드백으로 완전 학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누리집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학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재능교육은 컴퓨터를 이용해 학습하는데 익숙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수학,

영어, 국어, 한자 등 네 과목을 서비스 중이며, 올 연말까지 모든 과목에 '스스로e'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 **KB금융지주(회장 어윤대)**는 지난 2월 7일 설을 맞이하여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노숙인 보호시설에 무료급식용 반찬 재료로 안동 명품 간고등어 200박스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KB국민은행이 2011년부터 농어촌의 계절별·지역별 명품 특산물을 발굴하여 최우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KB마루아띠(최고의 친구)'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선정된 첫 특산품인 안동 간고등어를 노숙인 시설 반찬재료로 제공했다.

- **알앤엘바이오(회장 라정찬)**는 지난 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인 '알앤엘-아스트로시스템'의 뇌성마비 치료효과 확증을 위한 상업임상시험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알앤엘바이오는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생명재단과 함께 뇌성마비 어린이 줄기세포 무료 치료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에 대한 개선 효과가 확인된 사례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 **공한수 Big Dream&Success 사장**은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서 노래를 부른 성악가로부터 노래 가사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폭풍을 넘어서'라는 가사를 썼다. 폭풍을 넘어서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사회를 넘어 화합하며 미래로 나아가자는 노랫말을 담고 있다.



- **조인스HR(대표 이재산)**은 2월 27일 수요일 포니정홀에서 '다양성 관리'를 위한 HR의 새로운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으로 48회를 맞은 세미나에서는 다양성 시대의 HR 주요 핵심과제를 비롯해 다양성을 통한 불황극복 경영전략, 다양성 관리를 위한 스마트워크 사례,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 관리시대의 소통과 리더십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인사관리 분야의 다양성 관리에 대해 좀 더 다방면으로 접근하는 시간을 가졌다.

- **롯데호텔(대표이사 송용덕)**은 제주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제주 최대 규모의 럭셔리 야외 스파 & 가든 '해온(海溫)'을 개장했다. 해온은 기존 야외수영장을 비롯



해 풍차에 이르는 호수와 정원을 전면 개보수해 계절에 관계없이 자정까지 수영과 스파를 즐길 수 있게 조성한 힐링온수풀이자 테마정원이다. 해온은 힐링(Healing)과 펀(Fun)을 주제로 일상에 지친 고객에게 치유의 3단계인 Relaxation(휴식), Refreshment(재충전), Recovery(회복)를 전해 오래 머물수록 만족도가 더욱 커지는 콘셉트로 건설되었다.

- **원풍물산(회장 이원기)**의 '킨룩바이킨룩앤더슨'이 '킨룩앤더슨' 중국 전개 업체인 킨룩차이나에 완제품을 수출하기로 했다. 킨룩차이나는 지난해부터 영국 브랜드인 킨룩앤더슨의 라이선스권을 획득하고, 일부 제품을 국내 라이선스 전개사인 원풍물산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특히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해 국내 사업권을 보유한 원풍물산의 기획력과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풍물산은 이번 시즌 약 5억 원어치를 수출했으며, 향후 수주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는 2013년 상반기 채용에서 출신학교,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인사정책을 펼쳤다. 장태평 회장은 "열정과 능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열린 채용을 강조해왔다. 마사회측은 "장 회장의 이러한 채용 철학 덕에 마사회는 다양한 인재를 흡수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뽑은 신입사원들이 앞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이안 정이안한의원 원장**은 17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만성피로와 어깨 통증, 만성 소화불량 등 불편 증상들과 생활 속에서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아 <직장인 건강, 한방에 답이 있다>를 출간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리 이영근)**가 공공부문의 SOC시설관리 산업군에서 6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체 산업에서 30대 기업을 선정하는 All Star에 6년 연속 뽑혔고, 순위도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7위로 올랐다. 이영근 사장직무대리는 "국내 공기업을 대표하는 마음가짐으로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힘쓰고 협력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을 지속해 국민들로부터 변함없이 존경받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종원 대표**가 ㈜리사이트를 ㈜예술과여행으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이종원 대표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위상에 맞게 기존의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국내외 여행 사업의 접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법인명을 변경하게 되었다.



■ 대한민국 국전 수상에 빛나는 원로서예가 **손경식 한국서화원로연합회 회장**은 인간에게 크게 유익을 주며 세계를 진리에 동화시키자는 뜻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라는 홍익이념을 담은 작품을 널리 보급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기업에서도 대표적인 장소에 전시되고 있는 손 회장의 작품을 본원 회원사에 대폭 할인하여 제공하며, 손 회장은 작품 판매를 통한 수익금 중 일부를 TPT 멘토대학의 활동지원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 문의 : 손경식 회장 018-302-5242 / 장소영 실장 010-8201-7079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박성래** (주)동익건설 대표이사의 자녀 요셉 군의 결혼식이 1월 26일(토) 그랜드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있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윤영상** (주)다산 회장의 장남 홍식 군의 결혼식이 2월 2일(토) 웨딩의전당 2층 토파즈홀에서 있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의 장녀 지영 양의 결혼식이 지난 2월 2일(토) 청담동 대성당에서 있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우덕성** 선테일러 사장의 빙모께서 1월 28일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소모임 소식]

- **이종1그룹(회장 이윤수 / 총무 고지석)**은 1월 28일 한정식집 '예원'에서 신년 첫 모임을 갖고 회원 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2월 정기모임 역시 25일 예원에서 회원들과의 정겨운 시간으로 보냈다.

- **이종3그룹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임종렬)**는 1월 21일 명동 로얄 호텔에서 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현 회장단의 연임 결의와 2012년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가 진행되었고, 2013년 모임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

- **이종4그룹 인목회(회장 차진영 / 총무 박이락)**는 2월 28일 광화문 '설가온'에서 2월 정기모임 및 2013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회장 정문호 / 총무 정지환)**은 1월 14일 '손광성의 수필 쓰기'를 주제로 신년 첫 모임을 가진 데 이어 2월 18일 도곡동 '웅고롱고'에서 2월 모임을 갖고 회원들의 글을 토론했고 품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회사명	이름/직함	창립기념일
성원교역(주)	김창송 회장	3월 1일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	정창현 사장	3월 3일
한마음특허법률	구교근 대표	3월 5일
중앙에프앤에스(주)	이재욱 대표이사	3월 15일
협운해운(주)	마상곤 회장	3월 19일
(주)삼양미디어	신재석 대표이사	3월 20일
유진기업(주)	유재필 회장	3월 22일
(주)일삼	정우철 회장	3월 25일
정이안한의원	정이안 원장	4월 1일
서창전기통신(주)	윤계웅 회장	4월 1일
창인의료재단	오만식 이사장	4월 6일
(주)듀오	이충희 사장	4월 10일
(주)지케이이십일	배승호 회장	4월 17일
전능IT(주)	박용팔 회장	4월 19일
영동농장	김용복 명예회장	4월 20일

[신규회원]

- **송실공생복지재단 회장 윤기(법인회원)** 송실공생복지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재단으로 80여 년간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직업전문학교, 정신보건복지, 노숙인복지, 저소득층 자립 등 시대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활동을 선도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공생하는 사회를 만



들어온 사회복지단체이다. 또한 재일동포 고령자 지원을 위하여 일본 현지에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을 설립해 재일동포 고령자의 편안한 안식처인 '고향의 집' 만들기 운동을 해오고 있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펠리스 A동 2307호
- 전화 : 02-704-4011
- 활동임원 : 박현경 상임부회장, 임동신 상임고문, 윤혜린 기획실장
- 홈페이지 : www.kongsaeng.or.kr
- 추천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이대희 리딩경영연구소 대표(개인회원)** 이대희 대표는 펜실베니아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고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유진그룹 사장과 ㈜인프라넷 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리딩경영연구소 대표와 아이존인베스트먼트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나인 B-302
- 전화 : 02-598-8866
- 홈페이지 : www.leadinginst.com
- 추천인 : 가재산 조인스HR 대표

■ **최해근 Lucky서울 대표(개인회원)** Lucky서울은 일본에 여성의를류 전문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로 최해근 대표는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개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Lucky서울 대표로 활동 중이다.



- 주소 : 서울시 중구 흥인동 3-4 현대우일타운 1007호
- 전화 : 02-2237-6821
- 추천인 : 심재용 태성회계법인 이사

■ **고환상 엠씨아이엑스퍼리언(주) 사장(개인회원)** 엠씨아이엑스퍼리언은 금융기관 전략관리 솔루션을 판매하는 서비스업체이다. 고환상 사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과학종합대학교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으며, 하나은행 연수원장과 준법감시본부장, 그리고 ㈜미래신용정보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 주소 : 서울시 중구 수하동 67 센터원빌딩 서관 17층
- 전화 : 02-398-5413
- 홈페이지 : www.mciexperian.com

[연구원 소식]

■ 김덕희 상임이사 '영업마케팅 전략서' 출간

김덕희 본원 상임이사가 비즈니스맨을 위한 영업마케팅 지침서 <전략적 사고를 위한 영업마케팅 가이드>를 출간했다. 김 이사는 최적의 영업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 위주의 강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 책을 통해 역량 있는 영업마케팅 비즈니스맨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 2013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2012년 사업결과와 2013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결의에 대한 2013 정기이사회가 2월 22일(금) 롯데호텔 샬롯데에서 개최되었다.



이사회를 통해 논의된 사안들은 2월 28일 (목)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제1776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와 겸하여 열린 2013 정기총회에서 결의되었다. 장만기 본원 회장은 "총회를 통해 승인된 각종 사업들을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2013년 1~2월)]

■ 법인회원

- 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
- 인천국제공항공사
- ㈜협업해운(회장 마상곤) (부사장 이영근)
- 숭실공생복지재단(회장 윤기)
- ㈜성도GL(대표 김상래)

■ 개인회원

- 고재두 비디피로지스
텍스코리아 대표이사
- 조동호 (주)헤럴드 회장
- 구연숙 (주)헤럴드 부사장
- 차진영 성부트레이딩(주) 사장
- 권오범 (주)신성월드 사장
- 최해근 (주)Lucky서울 대표
- 김병춘 (주)세원 회장
- 고환상 (주)엠씨아이엑스퍼리언 대표
- 김서기 (주)태창파로스 대표
- 박이락 (주)성한트랜스택 사장
- 김덕영 (주)유섬 회장
- 신영자 (주)롯데면세점 부사장
- 김재용 (주)백천실업 사장
- 유재록 (주)다산 대표이사
- 박성훈 (주)모간 사장
- 임병문 (주)성신신소재 회장
- 박춘봉 부원광학(주) 회장
- 한재권 농업법인조인(주) 사장
- 유재필 유진종합개발(주) 회장
- 박용팔 (주)전능IT 회장
- 이종원 (주)예술과여행 대표
- 추민수 (주)흥진플러스 대표
- 정우철 (주)일삼 회장
- 오휘영 환경과 조경 대표

한파와 폭설에도 끊임없는 교육 진행과 2013 계약 체결

[교육컨설팅 소식]

■ 2013년도 교육운영 논의 및 협약 체결

올겨울 잦은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아카데미는 끊임없이 운영되었다. 1월 3일 장성군에서는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을 모시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1월 9일 경주시에서는 가수이자 문화콘텐츠 기획자인 이안 씨를 모시고 한국 음악에서 찾



아보는 문화적 DNA와 아리랑의 멜로디가 지닌 잠재력에 관한 시간을 가졌다. 같은 날 함안군에서는 출향인사이자 ㈜재능그룹 대표이사로 계시는 하동근 대표를 모시고 작년 12월 31일로 아날로그 방송이 마무리되며 시작된 디지털 방송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실생활 속에서의 발전상에 관해 전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2월 14일 상주시에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출향인사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계시는 남성욱 사무처장을 모시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김정은 체제의 전망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월 20일 본원과 새롭게 협약을 맺고 교육을 시작한 창녕군에서는 SBS예술단의 김정택 단장을 모시고 피아노 연주와 함께 하는 열정 특강이 진행되었다.

한편 올해 본격적인 교육 진행을 앞두고 본원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과 2013년도 교육운영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 울산 현대자동차 창립 46주년 비전콘서트 개최

세계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창립 46주년을 맞아 전 사원 비전콘서트를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다. 비전콘서트는 1부 명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2부 창작뮤지컬을 통해 서로가 공감하고 격

려하며 현대자동차와 개인의 비전을 다듬는 시간으로 운영된다.

1부 명사와의 만남은 SBS, MBC 연예대상에 빛나는 이홍렬 씨가 방송인 특유의 입

담과 유머를 더해 '나의 비전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라'라는 주제로 나와 동료와 가족이 행복해지는 방법에 관해 경험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초일류 한국양궁의 세계에 대한 도전에 관해 대한양궁협회 서거원 전무의 강연으로 한국양궁이 세계 1위를 유지해나가는 비결과 열정 등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2부는 창작뮤지컬 '어깨동무'로 즐거움과 함께 옛 추억을 떠올리며 감성을 어루만져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열정과 신념으로 가득 찬 울산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은 이번 감성교육에 커다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앞으로의 현대자동차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비전을 나누는 감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차수 당 400명씩 총 50회가 진행된다.



■ JFMU 아카데미 협약 체결

합동군사대학총장 김영식과 본원은 지난 2월 27일 대전 유성구 소재 합동군사대학 대회의실에서 JFMU (Joint Forces Military University) 아카데미 협약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김영식 총장 이하 교수부장, 전연실장, 원경실장, 기초실장 외 합동군사대학 관계자들과 본원 장만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 일반현황 소개, 협약식, 기념품 증정, 기념사



진 촬영,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식 총장은 “세계로 도약하고 더욱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전군의 엘리들이 모여 있는 합동군사대학에서 JFMU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참여하고, 사회적 이슈와 창의성, 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도록 인간개발연구원이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장만기 회장은 “대한강군을 만들기 위해 부족하지만 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JFMU 아카데미는 매월 1~2회씩 육·해·공군, 해병대의 소령급 이상 영관 장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3월 14일 첫 강연은 정운찬 동반성장 연구소 이사장이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합동군사대학은 2011년 11월 합동으로 전승을 보장하는 세계일류 군사대학교 육성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기존에 있던 육군대학, 공군대학, 해군대학 등을 통합하고, 국방어학원 및 합동교육부, 합동전투발전부 등을 산하조직으로 두고 있다.

[교육컨설팅기관 소식]

■ 장성군, 기금운용 우수기관 선정

장성군(군수 김양수)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기금운용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고 2월 25일 밝혔다. 행안부 평가



결과 장성군은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 12개 성과분석 지표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획득, 기금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장성군은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종 48억 원 규모의 지방기금을 설치 운용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금별로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적극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울산중구청, 전국 지자체 최초 장애인 배드민턴팀 창단

울산시 중구청장 박성민은 2월 15일 오후 3시 중구청 2층 중구컨벤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 배드민턴팀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중구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을 위한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울산중구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한 이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실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이번 팀 창단을 통해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증진과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체육을 실현하겠다”며, “선수들에게 안정된 훈련여건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중구를 장애인체육의 메카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창녕군, 모산 양파마을 정보화 최우수마을 선정

창녕군(군수 김충식) 대지면 모산 양파마을이 ‘2013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다. 모산 양파마을은 양파엑기스, 우포가시연꽃쌀, 참기름, 떡국, 볶음 참깨 등



지역농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해 지난해 모두 4억 5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 2002년에 조성된 양파마을은 2012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도 선도마을로 지정돼 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 양양군, 송이축제 3년 연속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선정

양양군(군수 정상철)의 양양송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양



양송이축제는 1997년 처음 개최된 이후 1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축제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3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됨으로써 국내 대표축제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게 됐다.

■ 평창군, 강원테크노파크 업무협약

평창군(군수 이석래)은 2월 21일 평창군청에서 강원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평창군과 강원테크노파크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양측의 협력으로 동계올림픽 관련 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기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을 소재로 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회사와 조직의 문제를 항상 고민하는 경영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 직원들의 창의력을 어떻게 개발하지?

업무프로세스가 왜 이러지?

우리 조직은 문제가 많아 뭔가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

시간관리가 안돼!

우리 리더는 리더십이 부족해!

올해도 예전방식대로 그냥 흘러가야 하나?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이 뭘까?

우리 조직의 문화를 활기치게 바꿀 순 없을까?

우리회사의 비전이 뭐지?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균형적인 발전과 핵심인재로의 성장!
상황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해법으로 하나씩 묶여있는 매듭을 풀입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플라톤은 '탁월성은 지속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탁월한 모든 것은 바로 그 지속성의 산물이고, 그 중 교육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은 밑으로 빠져나가버리고 콩은 콩나물로 자라납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게 쉬지 않고 스스로에게 물을 부어던 사람들은 지혜의 거인이 되어 이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지난 37년간 지속적인 지혜의 물을 사회에 부어 CSV(Continue Share Value) - 지속적 가치의 공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직급별과정

관리자교육과정
사원교육과정
매니저교육과정
시니어교육과정
신입사원교육과정
팀리더교육과정

테마별과정

손자병법리더십과정
힐링 리더십과정
오디션 리더십전략
멘토스쿨
이순신에게 배우는 "불패의 리더십"
"새생명(임종)" 체험과정

Core Competency

DOL(Dimension of Leadership)
SHL(Self Heal Leadership)
Risk Management 과정
Performance Managing 과정
전략적 리더십 과정
여성리더십과정
신뢰를 주는 스피치 과정

Business Skill

Communication(소통)과정
리더의 마음을 여는 의사소통과정
전략적 시간관리 과정
성과향상코칭 과정
기획능력 개발 과정
프리젠테이션 과정
미팅/조회 스킬 과정
Winner를 만드는 불패협상스킬과정

기업의 희망을 담은 판도라

People Development Reengineering
P A N D O R A

인간개발연구원은 지난 37년간 기업과 지자체에 수 많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지혜의 나눔을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경영, 경제, 문화, 건강, 글로벌, 리더십, 의식혁신,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초일류 명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변화의 물결을 주도해왔습니다

2013 KHDI LEARNING PROGRAM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문의 | 교육기획팀 070-8670-8436

개인 and 조직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터닝포인트

추천 교육

과정목표

죽음 체험을 통한 거듭나기와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고 실현할 수 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가치 찾기 및 잠재능력을 깨운다.
혁신을 위한 터닝포인트의 기회를 부여한다.

기대역량

- 자기내면에 잠재한 부정적 에너지를 소멸
- 객관적 시각화와 생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
- 자신의 소중한 가치 발견과 내 안의 거인을 깨우기
- 열정을 회복하고 풍부한 긍정적 에너지 창출
- 명확한 목표설정과 생명력 넘치는 계획 수립
- 탁월한 문제해결 능력과 창조성 개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생명 체험 과정

Module	단위별 내용
소중한 가치 찾기	- 역사의 수레바퀴 속의 나에 대한 재발견 - 진정한 나 자신의 근원적 이해 - 내가 원하는 진정한 가치 찾기 - 목표를 낮게 잡는 실수 - 자신의 미래에서 현재의 자신을 보기 -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다
명상과 유연장 작성	- 지구점 명상과 내 인생의 관찰 - 마지막 편지 쓰기 - 요비명 작성(쓰여지고자 하는 문구) - 유연장 남독
임종체험과 배설하기	- 일관체험 - 쥬우침과 거듭남의 순간을 체험 - 마음의 상처 치유, 명상과 새로운 서원하기
주도적인 삶 찾기	- 창조적 파괴를 통한 자기 혁신 - 새로운 도약과 나의 각오

Sales & Marketing Convergence

세일즈트렌드워칭
영업관리자 역량강화
비즈니스 4단계과정
신규 고객 개척 전략
브랜딩 마스터과정
마케팅 마스터 과정

Organization Program

조직치유와 시너지를 위한 힐링캠프
Team Success School
Creativity & Innovation
비전풍등
Mental Vitamin
Synergy & Change
조직 협력 "도미노"
열정과집중의 "도자기 만들기"

카드섹션

Family Training
화합의 하모니
- 조직의 활성화 "드림&네티"
- 함께하는 즐거움 "댄스Life"
- Role playing을 통한
조직문화 "연극치유"



전략적 사고를 위한 영업마케팅 가이드

김덕희 지음 / 집현재 / 256쪽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마케팅 전략지침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례없는 글로벌 불황과 이에 따른 극심한 경쟁으로 그 생존까지

도 우려되는 처지에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도 불황에 따른 연쇄부도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업마케팅을 강화하여 적정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영업매출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영업마케팅의 강화는 영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비즈니스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역량 있는 비즈니스맨이 궁극적으로 기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비즈니스맨에게 영업마케팅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역량 있는 비즈니스맨이 전략적으로 영업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인 셈이다. 특히 여러 사례들을 담아 비즈니스맨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내 몸을 살리는 산야초 효소 동의보감

정규영, 박종열 지음 / 유승원 감수 /

글로벌스 / 356쪽

현대인의 최대 화두는 건강과 행복!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몸이지만 건강의 시계는 멈춰 있다. 내 몸을 지켜 주는 비방은 어디

에 있는가? 건강의 비밀은 효소에 있다. 이 책은 오늘날 의사와 한의사들조차도 병든 내 몸을 딱 부러지게 고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효소는 몸 안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대사 활동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음식 소화, 영양 흡수, 세포 형성, 분해 배출 등에 사용된다. 효소가 없으면 각각의 영양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대학원에서 기공운동의학을 전공하고 '황제내경', '동의보감' 등 동양 의학서를 두루 섭렵한 저자는 효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산야초, 약초, 약용식물 등 100여 종을 골라 채취 방법, 효능, 보관 요령들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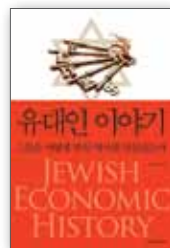
직장인 건강 한방에 답이 있다

정이안 지음 / 맛있는책 / 368쪽

직장인 주치의의 17년 비밀노트가 공개된다!

대한민국 직장인은 오늘도 아프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나 힘들고 바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

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사람마다 감정 표출이 다르다. 받더라도 어떤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때는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기도 하며 고민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이것이 심해지고 장기간 지속되면 오장육부의 조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질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의학 박사 정이안이 알려주는 건강과 성공 프로젝트! 직장인 1번지 광화문에서 17년 동안 직장인의 건강을 책임져 온 한의학 박사 정이안이 알려주는 검증된 건강비법과 성공비법을 담은 책이다. 책에는 스트레스와 컴퓨터 증후군 대처법부터 술, 담배, 카페인 문제와 식사, 수면, 휴식과 운동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더 늦기 전에 자신의 건강을 뒤돌아볼 것을 강조한다. 남녀 별로 직장생활에 따른 질병을 분류하고 정리했으며, 여가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다.



유대인 이야기

홍익희 지음 / 행성:B입새 / 662쪽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짜 유대인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던 유대인에 대한 편파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유대인의 실체적 역사에 접근하

고자 한 책이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하여 고대, 중세, 근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사를 횡으로 보고, 그 큰 흐름 속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정을 종으로 함께 엮어 경제사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경제의 역사를 주도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살피는 과정에서 유대인 역사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믿는 '유대인의 역사책'인 <구약성경>을 흥미롭게 인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유대인의 특징과 세계 경제사의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뮤지컬 순위 1위 <요셉 어메이징>이 무대에 오른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

데, 그 중 요셉은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요셉은 총명하고 영특한데다 해몽에도 밝았지만, 형제들은 항상 이상한 꿈 이야기만 하는 요셉을 마땅치 않아 한다. 형제들은 질투에 눈이 멀어, 지나가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한다. 노예가 된 요셉은 이집트의 대부호 포티파의 집으로 팔려가고, 성실함으로 주인의 신뢰를 얻게 된다.

- **일정** : 3월 10일(일)까지
- **장소** : 샤롯데씨어터(문의 : 1644-0078)



콘서트 **7080 타임머신콘서트**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샌드페블즈의 '나 어떡해', 휘버스 '그대로 그렇게' 등 70-80년대 대학 그룹사운드의 주옥같은 명곡들이 보컬리스트들의 목소리로 재현된다. DJ가 있는 음악다방에서 팝송이나 포크송을 들으며 통기타와 맥주, 장발로 대변되었던 청년문화. 그 향수를 자극하는 공연을 감상하며 옛 추억에 잠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다.

- **일정** : 3월 29일(금)~3월 30일(토)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문의 : 02-399-1114)



전시회 **현대미술과 서예 시리즈 그리기와 쓰기의 접점에서**

손글씨의 교육적, 문화적 역할에 주목하여 글씨와 그림을 아우르는 회화 컬

렉션을 전문적으로 소장한 독일 리트아트 컬렉션의 작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한다. 이 전시를 통하여 타이핑으로 대체된 손글씨와 박제화된 서예의 전통을 서구의 시각과 오늘날의 관점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 **일정** : 4월 5일(금)~5월 5일(일)
- **장소** : 서울서예박물관 2층(1-5실), 3층(6-10실)(문의 : 02-580-1300)



오페라 **백조의호수**

정통 클래식의 송고한 아름다움을 지닌 <백조의 호수>가 2013년 새봄 날개를 펼친다. 마법에 빠져 낮에는 백조, 밤에는 다시 사람이 되는 공주. 그녀에게 매혹된 왕자. 공주와 닮은 딸을 앞세워 왕자의 사랑을 방해하고 마법의 힘을 유지하려는 악마. 이

모든 스토리를 가능하게 하는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마리우스 프티파와 레프 이바노프 콤비의 위대한 안무가 무대를 장악한다.

- **일정** : 3월 8일(금)~3월 12일(화)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문의 : 02-580-1300)



연극 **이제는 애처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사랑이다. 이 연극은 뜨겁고 폭발적이며 열정적이었던 사랑의 시간이 흘러 점점 서로에 대해 무덤덤해지고 지루한 일상의 반복 속에 놓인 우리 시대 남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소중한 사람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임을 따뜻한 감동과 깊은 울림을 통해 전달하는 힐링 연극이다.

- **일정** : 3월 20일(수)~4월 3일(수)
- **장소** : 세종M씨어터(문의 : 02-3676-3676)

전시회 **금은보화展**



금은보화는 귀금속류를 대표할 수 있는 금과 은 외에 옥, 수정, 유리, 호박 등과 같이 특유의 아름다

움과 희귀함을 인정받아 널리 사랑받아온 재료를 의미한다. 리움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금과 은, 그리고 각종 보석 공예품이 가진 희소성과 그 자체가 가진 찬란함은 그간 한국 미술의 특징으로 꼽아왔던 순수, 여백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한국 미술에 내재된 화려함과 정교함이라는 새로운 측면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 **일정** : 3월 28일(목)~6월 2일(일)
- **장소** : 리움미술관 BLACKBOX(문의 : 02-2014-6901)

돈의 인문학_행복한 가게 살림살이 경제학

서울 강서구청 '비타민강좌'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 및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우리 사회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구청장 노현송)과 본원이 2007년 3월 개설한 '비타민강좌'는 꾸준한 강좌를 통해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강서학부모아카데미' 개설로 이어져 지역사회 열린 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강서구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연을 통해 자기혁신 및 자기개발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배움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돈의 인문학 - 행복한 가게 살림살이 경제학'을 주제로 강연해준 제윤경 대표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돈이 돈을 벌까?

'빛도 자산이다', '저축은 손해 보는 것이다', '투자하지 않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재테크의 유행과 더불어 만들어진 새로운 사회적 코드였다. 이 새로운 코드는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보다 공부 못한 사람들에게조차 뒤처지게 될 것이란 염포를 놓았다. 그 염포는 효력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다 어딘가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증을 가졌다.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는 <버블 경제학>이라는 저서에서 '사고의 전염'이 자산시장의 가격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기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논쟁들이 가열되기 시작하면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이 사회 전역에 전염병처럼 퍼진다. 그 믿음은 언론을 통해 부풀려지는데, 그것들은 보통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라는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달콤한 것들이다. 미래의 불안에 떠는 보통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새로운 기회'이면서 잘만하면 힘들이지 않고 공짜로 화려한 미래를 살 수 있으리라는 판타지를 안겨주는 것이다.

당연히 이 이야기들은 전염력이 강하다. 바로 이런 사회적 전염 때문에 자산의 가격은 실제 가치 이상으로 뛰어오르게 되는 것이다. 실러는 투기적 버블 시기에는 '가격 상승-이야기-가격 상승'이라는 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자산시장은 비이성적으로 과열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심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과한 기대심으로 인해 소외감이나 상대적 박탈

감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자산 가치가 커지면서 나를 제외한 알 수 없는 누군가는 앉은 자리에서 시세 차이만으로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 속이 상하는 것이다. 공돈을 벌었다는 기쁨과 누군가는 더 벌었을 것이란 박탈감이 묘하게 얹혀 그 사람은 빚을 끌어다 투자 규모를 늘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과정으로 투자를 통해 쉽게 돈을 버는 것은 자산시장에 참여했던 하지 않았든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게 만들어 폭탄으로 변해 가는 경향이 있다.

로버트 실러의 이론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가격 상승-이야기-가격 상승-박탈감-가격 폭등으로 시장이 건잡을 수 없을 만큼 비이성적 과열 국면을 맞는 것이다.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은 나만 빼고 모두 부자가 되는 것 같은 무언의 압력으로 멀쩡한 사람을 화나게 만들거나 결국은 재테크 대열에 뛰어들게 만들어 열풍을 이어간다.

이러한 비이성적 열풍의 결과 우리는 현재 가계부채 1,000조라는 현실을 살고 있다. 맞벌이 부부 박 씨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 부인은 공무원이다. 평범한 그들은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한다. 10여 년 전만 해도 조그마한 빚에도 잠을 자지 못했고, 저축을 하지 못하면 불안했으며, 투자는 남의 일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4억의 빚을 갖고 있으며, 그것도 그리 큰 빚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다. 매월 소득의 25% 이상, 연간 2,000여만 원을 이자로만 지출하고 있다.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지만 이자 내고 나면 평달에는 생활비도 부족하기 일쑤다. 결국 13억에 가까운 자산을 소유하고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재무 상담을 받기 전까

지 그들은 빚도 자산이고, 저축은 손해 보는 것이며, 어떻게든 투자를 더 해야 한다는 10여 년 전과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남들과 같다는 것에 늘 위안을 받고 있었다.



머니게임에서 지는 보통 사람의 재테크

박 씨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 두 채는 한때 처음 매입가 대비 30% 이상 오르기도 했다. 당시의 자산 가치는 대단한 수익을 챙겼다는 기분에 휩싸이게 만들기 충분했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 써보지도 못할 돈을 벌었다고 오해하면서 매월 생활비가 부족해 빚이 늘어나는 위험을 방치한 것이다. 결국 마이너스 통장이 바닥나 버렸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싶어 재무 상담을 찾았다.

결론은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없애고 현금 흐름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으로 대단히 간단한 것이었다. 문제는 팔려고 내놓으니 팔리지 않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심이 팽배하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상승대열이 지속되는 듯했다. 그러나 모두가 집으로 인한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집을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조차 구경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

재테크로 성공하려면 기대심이 풍부해 상승대열 분위기가 팽배할 때 남들과 다르게 팔아치울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이 남아 있을 때가 차익 실현의 적기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제는 빚 없이 혹은 적은 빚으로 박 씨 부부의 차익 실현을 도울 또 다른 매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10억이 넘는 돈은 그대로 깔고 앉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찰스 킨더버거는 투기적 국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한 바보가 나타날 것이란 믿음으로 맨 마지막에 남겨지는 불운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The Greater Fool Theory' 즉, '더 바보 이론'이라고 한다. 박 씨 부부가 처한 상황은 더한 빚을 끌어다 박 씨 부부의 차익 실현을 도울 The Greater Fool이 없는 '맨 마지막'에 남겨진 불운한 상황이다. 결국 숫자로만 존재하는 자산 가치를 구경만 하면서 힘들게 번 돈으로 자산에 딸린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재테크를 통해 일확천금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일확천금의 승자와 비용을 지불하는 패자의 희비가 엇갈리는 머니게임인 셈이다.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머니게임에서 적절한 시점에 털고 빠져나오는 승자의 기지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 오를 것이란 소문에 나약한 욕심으로 팔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더 이상 자신보다 더한 바보가 없을 때야 급하게 팔려고 서두른다. 그러나 결국에는 팔리지 않아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서

야 비로소 자신이 맨 마지막에 남겨졌다는 공포심을 자각하는 패자가 되는 것이다.



머니게임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민스키 시점'이라는 것이 있다. 포스트 케인즈언으로 불리는 경제학자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가설을 이론화한 것이다. 이론의 핵심은 금융시장에서 과도한 부채를 진 채무자들이 부채의 상환을 위해 자신의 건전한 자산마저도 내다 팔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금융공황이 시작되는 시점을 설명한다.

재테크로 돈을 번다는 것은 누군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나의 자산을 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나의 수익은 너의 비용, 머니게임에서 승자가 되어야 재테크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채 상승의 상관관계를 미루어 짐작컨대 누군가가 챙기는 재테크 수익이 또 다른 누군가의 부채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빚으로 남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평범한 중산층, 서민계층이라는 것도 서글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머니게임을 멈추어야 한다. 평생을 금융위기 연구에 바친 민스키는 머니게임의 끝을 제로섬, 즉 공멸로 결론짓는다. 남보다 잘살기 위한 어리석은 게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예언이 현실이 되기 전에 머니게임을 멈추고 건전한 재정관리 원칙을 되살려야 할 때이다.



새로운 마인드 셋이 필요하다

빚도 자산, 저축은 손해,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등의 왜곡된 사회적 의식이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 버렸다는 현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왜곡된 프레임 안에서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돈에 대한 건전한 개념이 사라지고 무조건 다다익선이라는 풍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회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부터 변화를 시켜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와 똑같은 마인드로

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풍요와 부에 대한 왜곡된 프레임, 즉 마인드 셋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많은 돈을 쓰고 좀 더 여유 있게 사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본질을 뜯어보아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하나를 가지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것도 소



유하고 싶어지는 것을 ‘디드로 효과’라고 한다. 18세기 철학자 디드로라는 사람이 친구로부터 서재용 가운 하나를 선물 받고는 그 가운의 색상에 맞춰 서재 전체의 가구를 바꿨다는 데서 유래한 경제용어이다. 새집을 장만하면 가구나 가전제품부터 혹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까지 세세하게 고려해 전동 드릴러가 들어있는 공구함까지 장만하게 된다. 냉장고 하나 바꾸면 칸칸이 설계된 수납 시스템이나 냉장 냉동 시스템을 심본 활용하기 위해 식재료를 채워 넣기 바쁘다. 새 차가 생기면 오디오 시스템부터 핸드프리 도구들을, 자전거 하나를 사더라도 안장이나 페달까지 전부 연속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심리적으로 풍요로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한 욕구불만에 시달린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현상은 쉽게 욕구를 충족시켜 버리고 나면 포부감이 형성되어 더한 욕구불만이 생겨 버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비에 있어 디드로 효과가 가중되는 것은 알고 보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 그 비교를 부추기는 기업들의 마케팅이 한몫을 한다.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를 보며 아이의 간절한 눈망울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며 “엄마, 우리 집은?” 한마디에 저소득층 가정에서조차 정수기가 필수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눈만 돌리면 광고문구로 도배되어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명절 가족모임에 참여해서도 서로의 아파트 가치를 자랑하거나 부러워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남과 비교하고 기업의 광고나 마케팅에 의해 조작된 욕구로만 들어지는 풍요는 풍요롭기는커녕 오히려 끝도 없는 욕구로부터 소외되어 더한 빈곤에 갇히게 만든다. 또한 욕구를 자극하는 것에 쉽게 이끌려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못돼먹은 금융도구로 충동적인 소비를 하고는 잡동사니에 시달린다.

일본의 인류학자 쓰지 신이치는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풍요로워지기는커녕 창문도 없는 대형 쇼펍센터, 아스팔트, 스포츠클럽, 다이어트 지옥과 절대로 끝나지 않는 공사판에 갇히고, 대신에 품위 있는 자연환경과 멀어진다는 지적을 한다.

중산층들의 소비 구조를 분석해 봐도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전기 제품들을 소유하느라 적지 않은 전기세를 낭비하고,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음식들을 보관하느라 커다란 냉장고를 소유한다. 혹은 버릴 식재료들을 냉장고에 가득히 보관한 채 대형마트의 카트를 채우는 쇼핑에 나서는 주말 이벤트를 어김없이 하기도 한다. 맛집 나들이로 늘어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유해성분이 가득한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집안일이 귀찮아 자동화 시스템을 좋아하면서 정작 스포츠 센터에 가서 살 빼느라 고생한다. 가족의 수는 점점 적어지는데 넓은 집을 소유하려 하고,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주택담보 대출이자와 관리비에 허덕이고, 청소 때문에 또 다른 비용을 감당한다.

이렇게 잡동사니 소비를 하면서 정작 꼭 써야 하거나 쓰고 싶을 때 돈이 없어 빚을 내거나 그런 미래를 살지 않기 위해 머니게임의 패자대열에 혹시나 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성장해야 할 것 같은 경제는 알고 보면 그 자체가 속임이 가득한 마인드 셋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진심으로 원했던 욕구를 실현하느라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조작된 욕망 때문에 신용카드를 긁고, 그 결제금을 갚기 위해 다니기 싫은 직장도 절대 때려치우지 못할 만큼 채무 노예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에게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모두가 많이 나눠 갖는 세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합리적인 자원의 재분배를 균형 있게 할 줄 아는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돼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고차원의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게 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탐욕스런 위정자들과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자극해 돈을 벌려고 온갖 속임수로 현혹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들은 사람들의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비교와 경쟁에 의해 형성된 욕구가 아닌 자신의 내적인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충실감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쉽게 큰돈을 버는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쓰지 신이치가 말하는 Cultural Creative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일명 ‘CC’에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CC적인 가치관이란 사회적인 지위보다는 자신의 내면적인 성장과 자기실현,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만족감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의 가정경제 위기 앞에서 보통 사람들을 탈출시켜야 하는 과제는 이런 가치관을 교육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소유 경쟁과 소비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공생의 경제관이 주는 행복한 마인드 셋을 형성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김예미**



● 제윤경 대표

돈 버는 법이 아닌 돈쓰는 법, 돈의 인문학을 교육하는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를 운영 중이다. 돈에 대한 욕심과 불안함이 아닌 미래에 대한 자기 꿈으로 가치 있는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돈 관리법, 돈에 대한 철학, 소비법 등을 교육한다. 현재 서울시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설계하고 제안해 지방정부에서 채무자 우호적인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안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국회를 통해 다양한 채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입법 사항을 제안하고 채권 채무관계에서의 의부조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생명력이 넘치는 언어생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한 존재로 살아간다. 만일 인간이 언어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동물들처럼 원시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며, 오늘날의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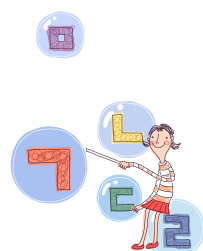
언어에는 생명력이 있으며 창조력이 있다. 창조주는 인간을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 창세기 첫 장을 보면 창조주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언어)으로 한 것을 볼 수 있다. 인간이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언어를 사용하여 창조행위를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구약성경의 창세기 기록을 보면 창조주는 말씀(언어)으로 세상을 창조했음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6절에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겨 물을 둘로 나누어라. 둥근 공간을 만드시오 그 공간 아래의 물과 그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9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의 물은 한곳으로 모이고 물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다.”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은 움직이는 생물을 많이 내어라. 새들은 땅 위의 하늘을 날아다녀라.” 2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라.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의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27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나와있다.

이렇게 창조주는 언어를 가지고, 아니 그 자신이 언어(말씀)으로써 우주 만물과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조주가 인간에게 그 자신인 영혼과 언어를 주어 인간이 되게 하고 창조주는 인간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한 그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망령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 신성한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언어생활을 해야 한다.

언어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되면 그 말은 창조력을 갖지만 두려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말을 사용하면 무서운 파괴력을 갖게 된다. 언어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말, 사랑이 담긴 말, 진실한 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말, 독기가 서린 말은 생명을 파괴하는 독기를 발휘한다. 칼로 베인 상처는 일주일이면 치료할 수 있지만, 혀(말)로 입힌 상처는 일생토록 치료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故 김수환 추기경은 평소 거실 북도 벽에 ‘말 한 마디’라는 시를 목각 현판에 걸어 놓으셨다고 한다. 그 내용은 이렇다.

부주의 한 말 한 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 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 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 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런 말 한 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 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 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 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2009년 2월 김수환 추기경은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을 남겨두고 영면하셨다.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객이 40만 명에 이르렀고, 조문객의 행렬을 다 이으면 300km가 넘었다고 한다. 당시 추모사를 영전에 바쳤던 김정남(YS 정부의 청와대 사회문화수석비서관) 선생은 <이 사람을 보라 : 어둠의 시대를 밝힌 사람들>에 적고 있다.

한마디로 김수환 추기경은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삶을 살고 간 분으로, 평소 말 한마디에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 김 추기경은 시내 길거리에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김수환 추기경님 아니세요?”라고 물으면 “제가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라고 했다. 한 번은 제주도 비행기 표 예약을 해놓았다가 당일 예약을 확인했을 때 항공사 측에서 “김수환 군은 예약이 돼 있지만 추기경 양은 예약이 안 돼 있습니다”라고 하자 “그러면 나는 누구랑 신혼여행을 가란 말이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처럼 김 추기경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인간미가 넘치는 분이셨다. 한편 그는 남에게는 항상 여유로운 분이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말 한마디에도 신경을 쓰는 엄격한 분이셨다.

언어생활에서 유머는 인간관계를 원활유처럼 부드럽게 해준다. 유머는 여유로운 마음, 사랑의 감정이 넘치는 마음에서 솟아난다. 유머는 언어생활을 정이 넘치고 아름답게 해주는 윤택유 역할을 한다. 인간은 하루라도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르게 하는 ‘사랑의 강물’이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다. 공기와 물을 들이마시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말을 듣거나 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당신의 말 속에 거짓 대신에 진실을, 미움 대신에 사랑을, 무미건조함 대신에 따스한 정을, 추함 대신에 아름다움을, 괴책함 대신에 신선함을, 미련함 대신에 지혜를 가득 담아 생명력 넘치고 활기 넘치는 언어생활을 누리도록 하자. **장만기**



요즘 리더십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지도자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 관심이 높다. 또 자신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관련 서적을 읽고, 유명 강사의 강연도 열심히 찾아 듣는다. 왜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이렇듯 점점 커지고 있을까? 과거와 달리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어 리더의 자질과 결단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에서는 반상과 적서, 남녀 등의 차별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리더가 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국가나 대기업 같은 큰 조직의 리더나 가정과 친목모임 등 작은 조직의 리더나, 아니면 이미 활동하고 있는 리더인가 앞으로 장래의 리더인가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정직, 성실, 배려심, 추진력 등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필요한 덕목 하나만 들라면 그것은 아무래도 리더십(지도력)이다. 리더십이 있다면 존경을 받으며 리더를 할 맛이 나겠지만, 이것이 없다면 지시나 명령 자체가 먹혀들지 않을 터이니 리더가 되지 않느니만 못할 것이다.

그러면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까? 가장 유치한 물리학(주먹)과 그보다 좀 상위인 금력(돈)으로는 오래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생명력이 오래가는 리더십은 구성원으로부터 존경받는 리더십이다. 존경받는 리더십은 어디서 나올까? 세계적인 리더십 연구자인 스티븐 코비를 비롯하여 21세기에 크게 성공한 33인의 리더들은 자신들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즉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높은 수준에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부리는 리더십으로는 결코 존경받을 수도 없고, 오래 지속할 수도 없다고 <리더십>이란 책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외국에서만 찾을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지도자로 나아간 분들은 일상 속에서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자세로 평생을 일관하며 살아갔다.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몇 년 전부터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과 한국국학진흥원장을 맡게 되어 안동에서 주 머물고 있다. 이런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이곳이 고향이며, 널리 존경받고 있는 퇴계 선생에 관한 기록과 일화를 접할 기회가 많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쌓일수록 섬기는 리더십의 가치를 새삼 절감하곤 한다. 잘 알다시피 퇴계는 학문과 사상이 드높은 대유학자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널리 존경받게 된 것은 높은 학문보다도 그가 70평생을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몸소 실천했던 겸손과 배려, 그리고 희생정신에 힘입은 바가 더 크다 하겠다.

퇴계는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적 관습과 사뭇 다르게 모든 사람을 대하였다. 여자와 어린아이, 하층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항상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다. 그가 오랫동안 조선 최고의 존송을 받아온 바탕은 바로 이러한 섬김의 자세였다.

요즘도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이 그 옛날 퇴계의 자취와 일화가 남아 있는 현장을 보고 듣고 느끼며 감동을 받고 있다. 특히 선비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수련생들은 하나같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주위의 가족과 고객에게 '퇴계처럼' 낮춤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부디 평생토록 실천해서 가정과 직장, 주위 사람까지 변화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그렇게 된다면 시작은 한 사람에게 불과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김병일**

● 김병일 이사장

1945년생으로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대학 행정학 석사, 미국 USC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통계청장, 조달청장, 기획예산처(現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통화위원 등을 거쳐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우리 사회에 선비정신 전파와 도덕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전통문화유산의 연구를 통해 미래사회를 이끌 정신적 좌표 확립에 힘쓰고 있다.

2012년 3월부터 집필해주셨던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의 칼럼에 이어 이번 호부터 김병일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의 칼럼이 시작됩니다. 좋은 글로 지면을 빛내주시는 이인식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We are never really happy until
we try to brighten the live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밝게 하는것이 행복이라고 말한 헬렌켈러 -
한세실업은 패션을 통해 세상사람들의 삶을 밝게 하겠습니다.

• 헬렌 켈러 (Helen Adams Keller) 1880~1968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습니다.



2012년 대미 수출 2억3천5백만장, 매일 64만장,
시간당 2만6천장이 팔리는 셈이며 쌓아 올린다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의 132배 높이가 됩니다.

미국에서 사랑받는 세계 유명브랜드-
한세실업이 만들고 미국인이 즐겨 입습니다.

한세실업주식회사